

國內 海洋觀光의 實態分析 및 發展方案 研究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해양을 이용한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천혜의 자연 조건에 비해 매우 부진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 증대에 따른 국민 여가선용 욕구의 증대 및 다양화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에도 해양관광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해양관광은 주로 공유자산의 성격을 갖는 해양자원의 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해양관광시설에 대한 집약적 이용은 때때로 해양자원의 상실과 연안환경 악화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해양관광의 활성화는 해양자원의 다목적 이용에 기여할 수도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대규모 매립·간척 사업의 부작용은 해양이 갖는 관광 및 위락기능을 경시한 데서 연유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1998년 초 새로 출범한 행정부는 국내 해양관광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 관광, 정보통신, 디자인 등 네 개 분야의 발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지식기반산업 발전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의지에 따라 남해안을 시작으로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현재 수행되고 있다.

해양관광은 자연 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해양관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양 환경 및 자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자원관리 차원에서 해양관광의 실태와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오래 동안 산악 중심의 관광진흥 정책과 1, 2차 산업 중심의 해양개발 전통으로 인해, 해양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내 해양관광자원의 분포와 그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국내 해양관광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이 담당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 해양관광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8년 12월

韓國海洋水產開發院

院長 洪 承 湧

〈ABSTRACT〉

**Marine Tourism in Korea : Current Status and Policy
Op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astal and marine tourism in Korea had long been considered to be slackened relative to the country's abundant resource potentials. In the recent years, however, many evidences suggest that marine tourism and recreational activities have rapidly increased owing mainly to the secular growth in personal disposable incomes.

To ensure sustainable marine and coastal tourism, proper management of coastal resources and environment is essential, since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marine tourism and recreational activities are highly dependent upon the marine environment.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the policy options for the sustainable marine tourism development in Korea, based on the analyses of endowment in marine tourism resources and of activities of marine tourism and recreations.

〈초 록〉

국내 해양관광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우리나라에는 해양을 이용한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천혜의 자연 조건에 비해 오래 동안 매우 부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증대에 따른 국민 여가선용 욕구의 증대 및 다양화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에도 해양관광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해양관광은 주로 공유자산의 성격을 갖는 해양자원의 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해양관광시설에 대한 집약적 이용은 때때로 해양자원의 상실과 연안환경 악화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해양관광의 활성화는 해양자원의 다목적 이용에 기여할 수도 있다.

해양자원관리 차원에서 해양관광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양관광에 대한 자료수집과 실태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양관광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실태분석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먼저 해양관광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관광자원 분포와 그 이용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향후 국내 해양관광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第 1 章 序 論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0세기를 통찰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사회현상 중의 하나는 관광이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교통수단의 한계와 타 지역에 대한 정보부족, 지역간 교류 부진 등으로 관광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금세기에 접어들어 산업산업의 성숙에 따른 소득증대, 대규모 교통수단의 발달, 지역간 교류 확대 등으로 관광이 보편적인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관광은 지역사회의 소득과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에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적 현상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주거지로부터 관광을 목적으로 25마일 이상 여행하는 데에 지출된 비용은 1986년도에 세계적으로 2조달러를 넘어선 반면, 군사적 목적의 세계 총 지출은 1987년도에 이르러서야 1조달러를 돌파하였다.¹⁾ 최근에 발간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관광산업은 1997년 3조 8천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전세계 총생산의 약 11%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관광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악과 도시, 해변 등은 이미 보편적인 관광지이고, 선박을 이용한 해상관광, 해중전망탑, 잠수정에 의한 해중관광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해변, 해상,

1) Miller, M., and Auyong, J., "Coastal Zone Tourism : A Potent Force Affecting Environment and Society," *Marine Policy*, 1991, Vol. 15, No. 2, p.75.

해중, 해저 등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을 본 연구에서는 해양관광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해양관광은 전체 관광에서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하계휴가 목적지로서 해변을 선택하는 비율이 75%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에서 세번째로 넓은 국토와 많은 내륙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외래 관광객 지출의 85%가 연안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²⁾

논자에 따라서는 관광객이 육지와 해변, 해양을 구분하지 않고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이동하므로 관광을 공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의 관광기본정책이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볼 때, 이는 충분히 이유있는 질문이다.

그러나 공유자산의 특성을 갖는 해양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의사결정을 할 때, '관광'은 해양자원의 이용과 이를 위한 자원분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해양자원을 개발함에 있어서 산업생산 측면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던 매립간척사업은 주로 농지조성, 산업단지 조성, 항만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즉, 성장일변도의 정책기조 하에서 관광개발을 위한 해양자원의 이용은 그 정책 우선순위가 매우 낮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으로서,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³⁾ 이는 국민의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여러가지 현상으로 볼 때 해양관광시설에 대한 수요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같이 온대지역에 속한 영국의 경우 해양관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도 기준으로 1.03%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5년도 기준으로 0.3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 이는 부분

2) Island Resources Foundation, "A Snapshot of Beach Restoration/Coastal Tourism Issues," 1996, Website: <http://cyboard.com/CoastalAdvocate/snapshot.html>.

3) 대표적인 예로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초 정부의 업무보고에서 "해양관광자원의 개발에 주력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4) Hwang, K. H., and Yoon, D. H., "Contribution of Ocean Industry to the Korean

적으로 문화 및 국민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고려할 때 관광을 목적으로 한 해양자원의 이용도가 그 한계효용에 비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2) 연구목적

해양관광이 연안지역의 환경과 소득, 문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해양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해양관광개발의 필요성과 그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해양수산부 발족 이전까지 해양자원이 갖는 기능별로 개발업무가 분산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해양자원관리 차원에서 해양관광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양관광에 대한 자료수집과 실태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해양관광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실태분석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먼저 해양관광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관광자원 분포와 그 이용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향후 국내 해양관광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해양관광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정형적(formal)인 연구는 아니다. 그보다는 해양자원의 관리 차원에서 해양관광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선행적 성격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는 기존의 관광 및 해양개발 관련 자료 및 정보로부터 해양관광과 관련한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함으로써 국내 해양관광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문헌자료의 탐구를 통해 관광의 제반 행태적 특성과 해양자원관리의 정책사안을 고려하여 해양관광에 대한 정의를 설정하였다. 또 기존의 문헌자료를 조사하여 국내 해양관광자원의 분포와 관광시장 실태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해양 스포츠형 관광의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관련 협회 종사자를 면담하였다.

국내 해양관광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에 문의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 해양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아직까지 해양관광의 정의를 체계적으로 설정한 연구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 제2장에서는 관광활동의 목적과 관광활동에 대한 행태적, 공간적 기준에 따라 해양관광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관광의 부분적인 측면만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양관광 전체에 대한 실태분석과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양관광에 대한 개념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관광의 정의에 따라 해양관광의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 해양관광자원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해양관광자원을 일반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자연자원, 인문자원으로 분류하고, 종류별 국내 자원 분포와 지역별 분포자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내 해양관광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양관광개발사업을 살펴보았다. 국내 해양관광의 실태 분석을 위해서 각종 통계자료와 관련기관 면담을 통해 활동 유형별 우리나라 국민의 총 참가회수와 그에 따른 지출 규모를 추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자원분포 분석과 시장실태 분석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중심으로 국내 해양관광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第 2 章 海洋觀光의 概要

: 정의, 분류 및 특성

해양관광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기틀을 확립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양관광'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광'이란 용어 자체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그 속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관광을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을 시도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광을 분석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본 장에서는 '해양관광'을 연구목적에 입각하여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관광의 유형 및 그 개발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1. 해양관광의 개념정립

1) 관광의 정의

'관광'은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욕구로부터 발생하는 행위이며 인간의 생활양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행태적으로 볼 때 관광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 된다. 따라서 관광은 그 속성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의될 수밖에 없으며, 연구기관과 학자에 따라 관광을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관광공사가 군의 평균반경 16km를 정주 생활권으로 전제하고, '관광'을 '일상 거주지를 벗어나 16km 이상을 여행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세계관광기구(WTO :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는 '유희, 건강, 과학, 국내 사정, 행정, 외교 그리고 사업목적으로 타국을 여

행하거나 체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OECD는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관계없이 외국의 영토에서 24시간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⁵⁾

WTO와 OECD의 정의는 국내관광보다는 국제관광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양 기관의 업무범위가 관광에 대한 국제통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관광'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위'보다는 인간의 '욕구'에 연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행태적 속성을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통일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

주요 기관별 '관광'의 정의와 기준

기 관	정 의 내 용	기 준
한국관광공사	자신의 일상거주지를 벗어나 16km 이상(또는 시·군 등 행정구역을 벗어나) 여행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여가이용(위락, 휴가, 건강, 연구, 신앙, 스포츠 등)이나 사업, 가족관계, 임무수행, 회합에 참가하기 위한 행위	- 공간 - 행태 - 목적
WTO	유휴, 국내적 사정, 건강, 과학, 행정, 외교, 종교, 체육 및 사업목적으로 또는 외교관의 상주, 군인의 휴가, 기숙사에 입숙하여 체류하는 등의 목적으로 타국을 여행하는 행위	- 목적 - 공간
OECD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관계없이 외국의 영토에서 24시간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것	- 기간 - 공간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공사, OECD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에 대해서는 사업기관이나 연구자의 사업 및 연구의 목적, 범위에 따라 일종의 실무적인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양관광'도 가능한 한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내용상 통일성을 갖도록 정의하되, 구체적인 정의의 내용은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기준은 연구의 목적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광원, 「관광학 원론」, 기문사, 1997, p.36.

2) 해양관광의 정의

(1) 배경

아직 해양관광에 대한 개념정립을 시도한 연구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연구사례를 보면 대부분 해양관광에 대해 엄밀한 정의를 내리기 보다는 연안을 중심으로 한 공간 기준으로 해양관광을 정의하거나,⁶⁾ 해양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바탕으로 해양관광을 분류하고 있다.⁷⁾ 엄밀하게 비판한다면 연구대상에 대한 개념정립도 없이 연구한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해양관광의 특정 측면만을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해양관광 전체에 대한 개념정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외국의 연구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해양관광을 공간과 행태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관광의 전체적인 실태분석과 관련정책의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양관광에 대한 개념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관광이 지출면에 있어서 세계 3대 산업의 하나이고, 전 세계 고용의 10.5%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연평균 12%의 성장을 기록하였다는 관광산업의 현 위상으로 볼 때, 관광이 해양자원 및 환경, 연안사회의 경제·사회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문의 공공정책에 있어서 해양관광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이 해양(연안)자원 이용을 위한 자원분배에 영향을 주고,
- 둘째, 해양(연안) 자원 및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 셋째, 해양관광의 내재적 가치는 장기적으로 자연 및 환경의 보존 상태에 크게 의존하는 바, 해양환경 관리는 공공부문의 주요 과제이며,
- 넷째, 관광이 어촌을 중심으로 하는 연안사회에 커다란 경제적, 문화적, 사

6) Cicin-Sain, B., et. al., "Coastal Tourism and Recreation," US National Ocean Conference, June 11~12, 1998, Monterey, CA, USA, p.1.

7) 畔柳昭雄,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시설(일본어)」, 1997, p.11.

회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관광이 공공부문에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관광이 갖는 소득의 창출 및 분배 등 본연의 사회적 기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양수산부문에 있어서는 관광자원으로 이용되는 해양(연안)자원이 소위 '공유자산'이란 점에서 공공부문의 개입 필요성이 특별히 강조된다고 하겠다.

(2) 기준설정

'해양자원관리'라는 공공정책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할 때, 해양관광을 정의하기 위한 우선적인 기준으로 '자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양은 수산물, 광물 등 여러 가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에 이용되는 자원에는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마리나, 해중공원, 해상낚시터 등과 같이 해양환경에 특화된 인위적 자원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은 공간 그 자체와 해양이 갖는 경관성 등이 관광자원으로서의 효용을 갖는다. 즉, 관광에 이용되는 자원은 유형적, 자연적, 개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 인위적, 복합적인 것까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자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해양관광의 정의는 매우 난해해질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대안으로는 해양관광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관광자원이 부존하는 '공간'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태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양관광을 공간 기준만을 가지고 정의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연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중에는 해양과 전혀 무관한 활동이 있다. 둘째, '관광'은 일반적으로 '여행'의 개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양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중에는 반드시 '여행'을 수반할 필요는 없으나 '관광' 본연의 목적인 '변화추구'를 충족시키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해양관광을 정의함에 있어 '행태'와 관련된 기준을 추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정의의 내용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공간'과 '행태' 두 가지 기준과 관광의 고

유 목적을 기준으로 해양관광을 정의하였다.

① 공간 기준

정책적 측면에서 해양자원관리의 공간적 범위는 통상 해양과 해양에 접한 일정한 범위까지의 육역을 포함한다. 즉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범위의 육지와 육지의 활동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해역을 포함하는 연안과, 관할권이 미치는 외해를 대상으로 공공부문에 의한 해양자원관리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안의 육역부는 육지와 해양 환경이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해양환경에 의해 큰 영향(해일, 연안침식 등)을 받음과 동시에 육지의 폐기물 배출을 통해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연안의 육역부는 해양환경과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해역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도 연안 통합관리의 원칙이 공표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안관리법이 입법제정 과정에 있다. 연안의 개념적 범위는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상호영향을 미치는 육역과 해역을 의미하나, 이를 지리적 범위로 해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연안역의 육역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육역 범위를 1~10km 범위로 설정한 예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안된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어항, 항만과 같이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안선으로부터 500m까지의 육역을 연안에 포함하고 있어서 연안 육역의 범위가 매우 좁게 설정되어 있다. 물론 이는 각 부처의 행정관할범위를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일 뿐, 연안 관리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해양환경에 의존하는 관광 활동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보통 환경관리 차원에서 해양형 휴양시설이 해안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후퇴하여 조성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관광에 의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대표적 지역사회인 어촌의 지리적 범위를 고려해 볼 때에도, 해안선으로부터 500m까지의 육역은 해양관광 관리차원에서 너무 협소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해양관광을 정의하는 공간적 범위를 해안에 접한 단위 지역사회

(리·동)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해양의존적 관광활동도 대부분 이 정도의 지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행태 기준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중에는 자원 측면에 있어서 해양과 전혀 무관한 활동이 있다. 예를 들자면 연안에 위치하는 사찰 관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그 속성상 해양의존형 혹은 해양연관형 활동이 아니므로 해양관광의 범주에 분류하기가 곤란하다.

행태적 특성에 있어서 해양관광에 분류할 수 있는 활동으로 畔柳昭雄(1997)은 해양에 의존한 활동이거나 해양공간과 연관된 활동을 들고 있다. 해양의존형 활동의 예로는 다이빙, 요트, 해수욕, 바다낚시 등을 들 수 있다. 즉,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해양연관형 활동이란 직접적으로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아니지만 해변과 같이 해역과 인접한 곳에서 특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치 발리볼, 일광욕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 해양과 관련된 무형자원, 즉 풍습 혹은 문화와 연관된 관광활동도 있다. 예를 들어 풍어제나 당산제, 해양과 관련한 역사를 소재로 한 축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은 간접적으로 해양에 의존하거나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양관광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해양의존형 활동이나 해양연관형 활동은 반드시 여행을 수반할 필요가 없으나 관광의 고유 목적인 일상생활로부터의 변화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있다. '여행'을 반드시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관광과 구별하여 레크리에이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레크리에이션은 '휴양과 오락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연안 시·군에 거주하는 인구가 총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도시인들에게 반드시 여행을 동반할 필요가 없는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서 해양의 가치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해양관광을 의미하는 용어로는 'Marine Tourism,' 'Coastal Tourism' 혹은 'Marine and Coastal Tourism'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Marine

Tourism and Recreation'과 같이 'Recreation'이란 용어를 병행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행태적으로 볼 때 해양관광은 레크리에이션적 요소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해양관광은 <표 II-2>에 나타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II-2>

해양관광의 정의

기	준	내	용
목	적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행위	
공	간	해역과, 연안에 접한 단위 지역 사회(리·동)에서 일어나는 관광 목적의 활동	
행	태	직·간접적으로 해양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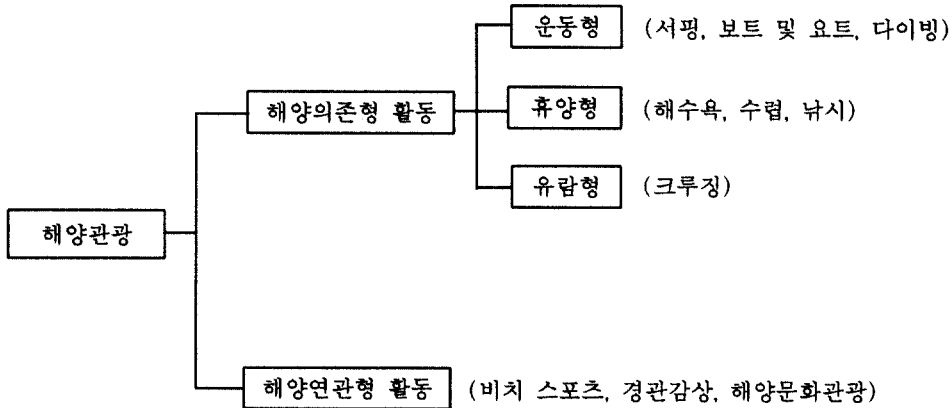
2. 해양관광의 유형

해양관광 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히 경관을 감상하거나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는 등의 휴식성 활동부터 활동성이 대단히 강한 서핑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최근에 레크리에이션 활동 자체가 다양화, 개성화, 복합화 되어 가는 경향이 있지만, 해양은 그야말로 참여자의 욕구와 원하는 활동량에 따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해양의존형 해양관광은 활동성에 따라 운동형, 휴양형, 유람형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해양연관형 관광으로는 수족관 및 해양박물관 관람, 해변에서의 각종 게임, 싸이클링, 일광욕, 산책, 생산현지 수산물 시장(fishermen's wharf)에서의 쇼핑 등 매우 다양한 활동유형이 존재한다.

〈그림 II-1〉

해양관광의 유형



1) 스포츠형 해양관광

해상공간에서 바람, 파도, 해류의 흐름 등 역동적인 자연조건을 활용하는 수면 및 수중공간에서의 운동으로 요트 및 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윈드서핑,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해상 스포츠는 장비나 보조기구의 도움이 필요하며 때로는 기본 강습을 이수해야 하는 등 기본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아져야 일반화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관광은 역동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주로 젊은 층이 선호하고 있다.

2) 휴식성 해양관광

한여름 폭서기를 전후해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관광은 주로 해변가에서의 해수욕, 모래찜질, 해변캠프, 해변학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조개잡이, 갯벌생태관광 등도 부수적인 활동이 되고 있다. 또한 계절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조간대수렵 및 바다낚시도 휴식형 해양관광의 일종으로 개발되고 있다.

〈표 II-3〉

해양의존형 레크리에이션의 종류 및 내용

형 태	종 류	내 용
스포츠형 해양관광	보딩	서 핑 · 길이 2m 전후의 보트를 조절하여 파도의 경사면을 타고서 오르락내리락하는 파도타기 스포츠
		윈드서핑 · 파도가 없어도 서프보트(Surf Boat)로 즐기려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서핑보트에 돛을 달아서 바람을 따라 나아가는 것
	요트 및 보트	세 일 링 요 트 · 선실이 있는 쿠르저 요트는 외양에서 돛을 올려 항해(대형요트) · 선실이 없는 단기급 요트는 1~2인승 정도로서 바람을 받는 돛을 통해 옆으로 흐르는 힘에 대한 선체의 저항력을 전진력으로 바꾸어 주는 원리로 진행하며 승무원의 체중 이동에 의해 균형을 취함
		동력요트 · 러너보트라는 선실이 없는 개방형과 쿠르저라고 불리는 선실이 있는 것이 있으며 해상일주, 낚시, 수상스키 등에 이용
		젯트스키 · 워터젯 추진을 이용한 오토바이 타입의 소형 모터보트
	해 양 다이빙	· 수중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물고기들과 친숙해지려는 것 〈스킨다이빙 : 스노클링〉 - 스노클, 잠안경, 잠수발을 사용한 간단한 잠수기구로 10m 수심 미만의 얕은 지역을 잠수 〈스쿠버다이빙〉 - 압축공기탱크와 호흡기를 착용하고 수심 10~30m에서 수중 활동
휴 식 형 해양관광	해 수 욕	· 여름철 모래찜질, 해변캠프, 해변학교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휴식성 해양관광
	조 간 대 수 령	· 물때에 맞추어 일정구역의 조간대를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바다의 생태계를 접하게 하여 산교육의 기회 제공 - 조개잡이 등 해변 동식물 채취
	바 다 낚 시	· 유어선, 잔교낚시, 암벽낚시 등
유 랑 형 해양관광	크 루 즈	· 유람선에 승선하여 해안을 순항하는 탐방형 관광
	해 중 유 랑	· 해중전망탑, 관광잠수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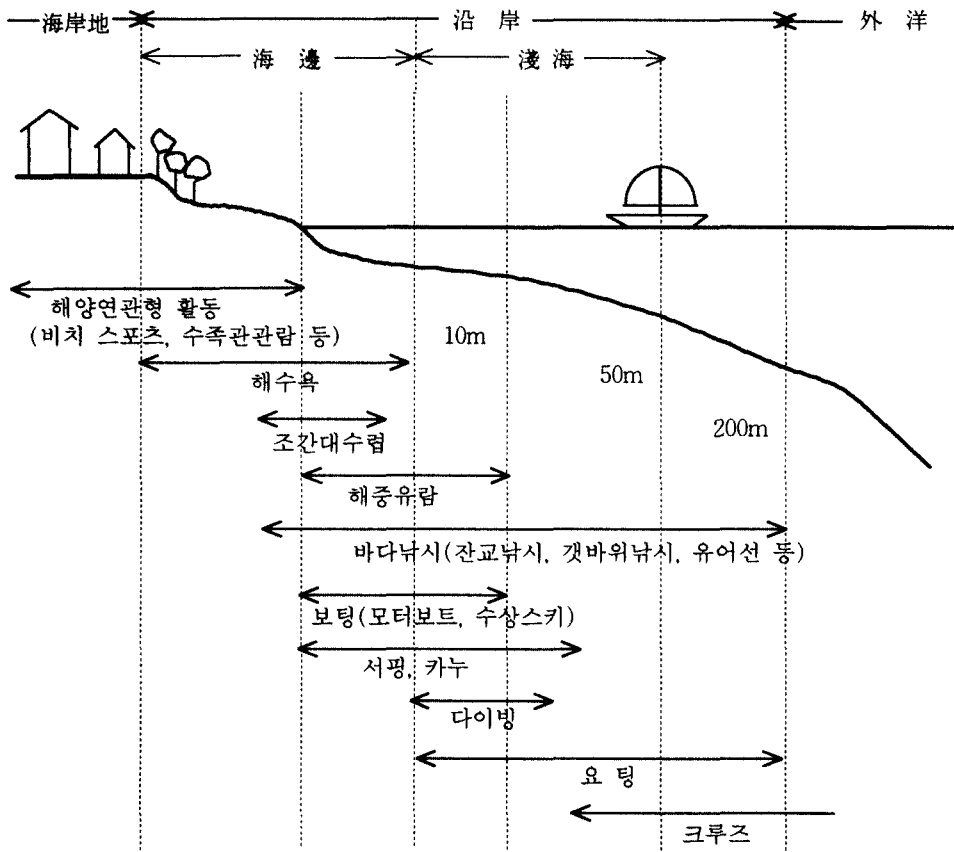
자료 : 김성귀, 「우리나라 해양관광 현황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재편집.

3) 유람성 해양관광

해양유람(Cruise) 관광사업으로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관광여행 상품으로서 정년퇴직 후 여유시간과 연금 등의 여유자금에 있는 계층이 선호하는 상품이나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값싼 상품도 개발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는 금강산 쿨루즈 상품이 개발되어 향후 이 분야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림 II-2〉

해양레크리에이션의 공간적 분류



자료 : 畔柳昭雄, 전계서, 1997, p.20.

4) 해양관광의 공간적 분류

해양관광은 연안 육역부와 수심 50m 이내의 천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육역부에서는 주로 비치 스포츠, 캠핑 등 해양연관형 활동과 해수욕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역에서는 외해 쪽으로 나가면서 해수욕, 조간대 수렵, 바다낚시, 서핑, 다이빙, 요트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연관형 활동, 해수욕, 바다낚시 등 육역 및 육역에서 가까운 해역에서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 해양관광개발의 특성

관광이 갖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일반적으로 고용효과가 크고,⁸⁾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이 낮은 소규모 관광관련 사업을 활성화시키며, 전방연관효과는 매우 낮으나 매우 높은 후방연관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다.⁹⁾ 즉 관광은 지역사회에 상당한 소득분배기능과 산업구조조정기능을 갖게 되며, 이러한 이유에서 관광이 지역개발이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기도 한다. 해양관광개발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있어서 일반관광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자원, 입지, 환경에의 영향 등에 있어서 일반 관광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 모든 특성은 해양자원 관리에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요소이다.

1) 자연조건에 대한 높은 의존도

해양관광은 '해양'이라는 자연환경에의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대부분의 해양 레크리에이션은 역동적인 해양의 자연조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기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트를 즐기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심을 갖는 정온수역이 필요하며,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서는 해변의 넓

8) 관광은 여관, 음식점, 편의점 등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소규모 관광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러한 산업은 노동집약적 성격을 가지므로 고용효과가 큼.

9) 관광 지출은 주로 최종재에 대한 소비를 위한 것이므로 전방 연관효과는 거의 0에 가깝고, 후방연쇄효과는 매우 높게 나타남.

은 공간과 해역의 완만한 경사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수온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보전적 혹은 복구적인 시책이 수행되거나, 방파제나 호안, 선착장과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를 통한 환경개조적인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해양관광개발은 그 목적에 따라 보전에서 개조까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해양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해양자원의 상태나 보존가치에 따라 적합한 해양관광 유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존하는 해양자원의 보존가치는 높지 않고 재개발이 필요한 연안지역의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해양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조하거나, 수족관, 수중전망탑, 해상호텔 등 해양 간접체험시설을 설치하여 다수의 관광객을 위한 집약적 개발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시설의 도입을 통해 재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한편, 보존가치가 뛰어난 해양자

〈표 II-4〉

해양관광자원의 개발방식

구 분	특 징	이 용 행 태
자연개조형	· 집약적 개발로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관리·운영되는 자원지역 · 광범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이용	· 자원의 집중적 이용 · 대량방문객 수용
자연조화형	· 해양경관지 및 해중경관 지역 · 자연의존형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이용	· 분산적 이용 · 특정지역에 고밀도이용 지구 설정
자연보존형	· 보존가치가 높은 해양 경관지 및 해중경관지역 · 보는 활동 중심	· 특정지역에 고밀도이용 지구 설정
완전보전형	· 보존가치가 대단히 높은 자원 지역 · 학술연구 등 제한적 활동	· 보전이 전제된 매우 부분적인 이용

자료 : 김홍운·김사영, "우리나라 해양관광자원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1992, Vol.7, No.1, p.31에서 재편집.

원 부존지역은 자연의존형 해양 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 개발하여 자연 조화형 해양관광지로 조성하거나, 또는 '보는 관광'을 중심으로 한 해양경관지로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해양관광은 관광자원의 집약적 이용에 의해 종종 해양환경 보존에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해양자원 보존에 '관광'이라는 요소를 적절히 도입할 경우 해양자원의 장기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해양관광개발은 적절히 계획되고 추진될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일방적 역기능만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매립에 의한 농지 및 산업단지 조성 과 같은 해양이용방식과 구별된다고 하겠다.

2) 입지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마찰 가능성

해안지역은 해상통로로 연결되는 입지성과 수산자원 및 수자원이 풍부하게 부존하는 자원성에 따라 경제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인간의 주거지가 밀집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안지역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는 <그림 II-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촌이라 할 수 있다.

어촌은 산촌에 비해 대체적으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국내에는 해양관광지를 조성을 위한 가용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해면쪽으로는 공동어장이 밀집하여 해양 레크리에이션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관광지 조성이나 관광시설의 건설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유자산인 해양자원 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며,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관광개발은 긍정적인 효과 못지 않게 부정적인 결과도 많이 유발한다. 예를 들어 일부 해안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시설에 대한 선점식 난개발은 주변어촌사회의 미풍양식을 저해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압력(stress)을 증가시켜 수산업에 피해를 주며, 해안경관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혜택이 지역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일부 계층에 집중됨으로서 지역사회에 커다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II-3〉

우리나라 어촌(자연부락)의 분포



자료 : 이재천, 「어촌관광」, 1994, p.21.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관광개발이 그동안 경제적 효과에 치중한 나머지 지역주민의 요구나 편익을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정부 주도에 의한 하향식 관광개발이 주민이익의 경시, 외자본의 과도한 유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발이익의 환원 미비, 지역환경 훼손, 지역내 불균형 성장, 시설기준의 모호성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관광개발은 시민의식의 성숙과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점차 사회적 긴장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고유한 생활문화를 보유한 어촌지역에서는 관광시설 조성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어업여건의 악화에 따라 정부는 1994년도부터 어촌의 정주생활 환경과 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어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수산분야의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어업생산기반 확충만으로는 해안에 거주하는 연안 어민의 소득 수준을 크게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에서 어업소득의 정체에 대한 대안으로 관광의 활성화는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한국농촌연구원의 조사(1996)에 따르면 연간 어촌을 찾는 관광객 수는 어촌 당 평균 5,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사대상 어촌의 76.9%가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다양화하는 국민의 관광욕구 충족과 해양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양관광개발은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관광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해양관광개발은 관광자의 욕구 충족과 사업의 수익성 못지 않게 해안지역 주민의 요구와 편익을 증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이 사회의 빈민층과 부유층의 양극화 현상을 제거하고 중간계층의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Kadt의 가설¹¹⁾이 의미하는 것처럼, 관광이 갖는 사회적 기능이 부인되어서는 안된다.

10) 농림부,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1996, p.71.

11) 이장춘, “한국 해양관광자원개발의 전략,” 「해양정책연구」, 1987, Vol.2, No.2/3, p.223.

3) 어메니티 수준에 의한 제약

장기적으로 볼 때 관광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경이다. 오늘날 많은 관광객들이 목적지를 선택함에 있어 환경오염에 매우 민감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의 질은 관광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어메니티(amenity)¹²⁾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해양관광이 이루어지는 연안지역은 육지와 해양 환경이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변화에 민감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육지의 폐기물 배출지로서 매우 취약한 환경구조를 갖고 있다. 연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양관광은, 따라서, 환경오염에 특히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인기 있던 해양 관광지가 환경오염에 의해 급격히 쇠퇴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아드리아해에 빈발하는 적조로 인해 해수의 탁도가 증가하여 수영객이 대폭 감소하고, 방사능 오염에 의해 영국의 해변이 폐쇄되었으며, 캐나다의 일부지역에서 산성비로 인해 연어의 개체수가 줄어들음으로써 바다낚시가 크게 쇠퇴하고 약 600개의 숙박시설이 문을 닫았던 예를 들 수 있다.¹³⁾

특히 연안 오지나 도서 지역의 경우, 용수 확보와 하수 및 쓰레기 처리문제는 해양관광개발에 커다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 일정한 어메니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그 지역의 관광의 매력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감퇴될 수 없다. 다시 말해 해양관광개발은 대상지역의 환경수용력(environment carrying capacity)에 대한 철저한 배려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해양관광지의 어메니티 수준을 좌우하는 또 다른 요소로서 자연경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문화나 인위적 자원에 의한 관광과는 달리 해양관광 중에는 경관감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관광지의 경관은 일차적으로 자연조건에 의해 결정되지만,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인위적 시

12) '어메니티'란 '시설, 자연조건 등의 주변여건이 기분에 맞는 정도'를 의미하며, 우리말로 '쾌적성'으로 번역되기도 함. 그러나 '쾌적성'이 어메니티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어를 그대로 한글로 표기하기로 함.

13) Ceballos-Lascurain, H., *Tourism, Ecotourism and Protected Areas*, IUCN-The World Conservation Union, 1997, p.19.

설물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환경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미학적으로 설계될 때 관광지의 어메니티 수준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비용절감과 내구성을 이유로 주변 자연조건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4각형 구조물을 고집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건축물의 수명이 수십 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시설물이 관광지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4) 접근성에 의한 제약

해양관광 개발에 있어서 또 한가지 고려하여야 할 요인은 관광지까지의 접근성이다. 해양관광은 보통 표적시장인 도시지역로부터 멀리 있어서 접근성이 불량한 경우가 많다.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으로 인해 관광지의 접근 편의성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¹⁴⁾ 관광지의 접근성은 구체적으로 항로나 도로, 해로 등의 접근경로와 교통 기반시설에 달려 있는데, 이를 관광지의 루트 수용력(route carrying capacity)이라 할 수 있다. 루트 수용력은 환경수용력과 함께 교통 오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 해양관광지의 개발 규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4. 해양관광 개발계획의 전제 및 요소

세계 각국 정부는 21세기 관광시장의 전망을 밝게 보고 매력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교통수단의 발전에 따라 관광시설에 대한 대량 소비가 가능해진 오늘날에는 각광받는 관광지나 시설에 대한 모방시장도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30년 전이라면 반드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야 볼 수 있었던 주제공원 디즈니월드는 일본 동경, 유럽의 파리 근교에서도 접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주제공원이 도처에 생겨나고 있다. 반

14) Fridgen, J.D., "Trends in International Travel and Coastal Touris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astal Tourism Development for Korea : Method and Practice, 1997, p.22.

면, 유사한 내용의 관광지나 관광시설이 세계 각처에 개발됨으로써, 관광업체 간의 경쟁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으며 그 강도도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외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서¹⁵⁾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국내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 있는 유사한 개념의 관광시설에 대한 경쟁력까지도 감안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관광의 역사가 짧은 동양권의 관광산업은 계획수립, 자금조달, 홍보 및 마케팅, 경영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서구 선진국의 동종 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관광개발에 대해 호주의 관광전문가인 Fagence가 지적한 사항¹⁶⁾을 번역하여 인용해 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치 리조트는 공통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지역의 리조트들은 전형적으로 향후 확장계획의 수립도 없이 개별적으로 개발되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것들은 풍부한 자연 여건 속에서 매우 제한된 관광시설만 갖춘 채로 시작된다. 관광기능을 갖는 해변지역을 따라 선형으로 형성된 리조트들은 물리적인 개발이 진전되면서 도심지역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밟는다.”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독창적인 요소(originality)가 전무하여 개발대상 관광지의 성격을 차별화하지 못한다면, 자금력과 경영능력 등이 선진국 업체에 비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사업주체는 이들과 매우 힘겨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해양관광개발은 그 공간적 대상이 연안이라는 점에서 내륙형 관광개발과는 구분되는 계획 요소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안은 산악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고, 변화에 민감한 환경천이지대이다. 따라서 해양관광개발에는 경관과 자연 조건에 크게 의존하는 해양관광의 특성상 어메니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개발 대상이 되는 연안 공간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그 지역만의 매력

15) 국내 해외관광객은 1987년 51만 1천명에서 1997년 454만 2천명으로 10년간 약 9배, 연간으로는 평균 24.4%의 속도로 성장하였음.

16) Fagence, M., "Principles of Sustainable Coastal Tourism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astal Tourism Development for Korea : Method and Practice, 1997, p.186.

요소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독창성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해양관광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연 여건 및 지역사회와 조화되고 공간적 특성을 살리기 위한 개발계획의 전제 및 요소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¹⁷⁾

1) 기본전제

해양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전제는 연안 공간이 갖는 다양한 자원과 환경 특성을 해양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설계획과 관련하여 기능·형태적인 면(하드웨어적 측면)과 시설사용방법 측면(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원이 갖는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환경부하의 과도한 증대를 초래하는 시설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인공구조물의 도입은 피하여 해양관광 공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을 그려내고, 그 모습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전망하여야 한다.

2) 계획의 요소

해양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과, 계획의 기본틀을 바꾸지 않고도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선견성이 필요하다. 또 계획지 내에는 다양한 자연적, 사회적인 지역특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한 독창성의 창출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1) 조사·분석

계획이 과학적으로 실증될 수 있도록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획

17) 해양관광개발 계획수립의 전제와 요소는 畔柳昭雄, 전게서, 1997, pp.21~35와 Fagence, 전게서, 1997, pp.162~187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수립의 조건으로는 해역의 지형·지세조건, 기상·해상조건, 환경특성, 생태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조건 등이 있다.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정량적·정성적인 조사·분석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과거의 데이터도 수집한다. 그 결과로부터 시설입지에 요구되는 과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리한다. 특히 해안, 해저, 수심, 유향, 파랑, 생물상황 등에 대해서는 경년변화와 지역차가 발생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시설계획

한편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서 적합한 해역에는 공동어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먼바다에서는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설입지 결정시 대상 해역에 있어서의 용도상충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시설계획에 있어서는 수요예측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초기 시설규모를 결정하고 향후 확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점적, 단일적인 시설입지를 피하여, 면적, 복합적인 시설입지를 도모함으로써, 시설의 집적도를 높여 레크리에이션 환경을 형성하기 쉽도록 한다. 이는 자연환경에 대해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더우기 다양한 시설의 입지는 시설 상호간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다채로운 교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변화함, 즐거움, 화려함이란 장소적인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다.

해양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기후와 경제상태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시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3)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

해양 레크리에이션은 해변, 해중, 해면 등 연안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안전하고도 쾌적하게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인공시설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자연환경의 매력을 잃지 않도록 각종 시설이 환경과 공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환경 훼손

에 따른 경감적 조치 방안을 계획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개조적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생태계에 대한 배려

해양관광 개발은 자연환경이 풍요로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어류 생장 혹은 생식의 장소로서 생태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물리적 요인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여 이를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태계를 배려한 다공질의 환경을 형성하는 조치와 인공적인 생물생식공간의 형성을 도모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

(5) 자연경관에 대한 배려

해양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과 거점은 대개 자연환경 가운데 만들어진 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형성에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정신적인 편안함과 평온함을 구하고자 해양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환경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광대한 해변에서의 활동과 해면에서의 요트 및 보트 활동을 하는 경우, 해안경관이 능선, 해안선, 수평선이라고 하는 단조로운 풍경으로 구성되어, 자신의 위치와 장소를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시설과 거점이 표식(landmark)과 상징물(symbol)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적인 고려도 중요하다.

(6) 주변환경에 대한 배려

해양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거점을 자연의 풍요로운 환경 속에 설치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연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된다. 따라서

관광객 상호간 존중하여야 할 규범 설정과, 내방객 차량에 따른 주변혼잡 및 불법주차 차량에 대비하기 위한 차량진입금지 구역과 주차금지 구역 설정 등이 필요하다. 또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해변에서의 쓰레기 및 오물 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第3章 國內 海洋觀光資源의 分布

과거 성장일변도의 정책기조 하에서 관광을 위한 해양자원 개발은 그 우선 순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이나, 최근의 사회적 욕구변화는 관광 및 레저를 위한 해양공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해양개발을 통하여 해양자원 이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닌 국내 해양관광자원의 분포를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해양관광자원의 정의 및 분류

1) 관광자원의 정의

관광자원이란 관광객의 관광욕구와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자연적, 인문적 관광대상으로서 매력성과 흡인력을 지닌 소재적 자원으로 정의된다.¹⁸⁾ 관광자원은 관광객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범위도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에 따라 관광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물이 관광에 적합한 자원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회과학적 연구가 사회 내 수많은 개인의 개별적인 취향을 연구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관광자원이란 많은 관광객을 흡인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어떠한 소재로서 관광시장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 것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의된 관광자원은 관광객의 취향 및 가치관 변화에 따라 그 가

18) 서태양, 「관광자원론」, 기문사, 1991 p.15.

치가 달라지게 된다. 즉, 기존의 관광자원이 점차 매력을 상실해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과거에는 관광대상이 될 수 없었던 자원이 새로이 각광받기도 한다. 따라서 관광자원의 가치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그 엄밀한 정의도 내리기가 힘들다.

관광자원의 분류 또한 학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는 관광자원을 크게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인문자원은 다시 사회자원, 문화자원, 산업자원으로 분류된다.

자연자원은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관광대상으로서 주로 경관미와 위락적 기능을 지닌 자원을 의미한다. 자연자원은 주로 산악, 해변, 하천 및 호수, 온천 등을 포함한다.

인문자원은 자연자원과 반대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가공된 유·무형의 관광 대상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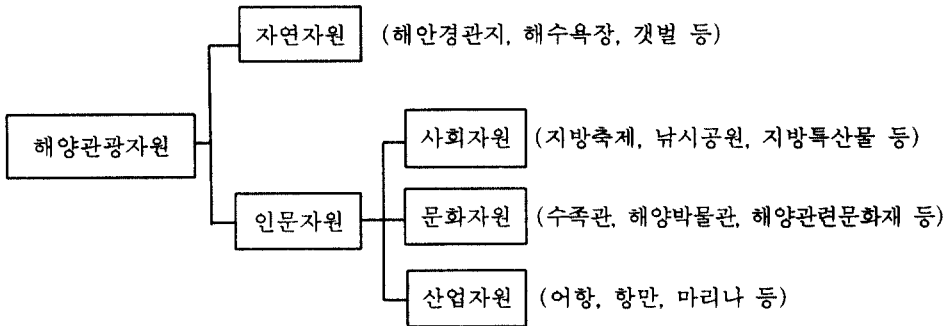
사회자원은 그 나라의 국민성과 민족성을 반영하는 규범문화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주로 생활양식, 풍속, 전통예술, 종교, 향토축제 등이 사회자원의 범주에 포함된다. 문화자원은 민족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뛰어나고 관광매력을 지닌 관광 대상을 의미한다. 즉,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보유하여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문화자원은 일반적으로 문화재와 박물관으로 구별되며, 문화재는 유·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포함한다.

2) 해양관광자원의 정의 및 분류

해양관광자원은 관광자원 중 해양관광의 대상이 되는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해양관광에 대한 정의는 이미 앞장에서 설정하였다. 관광자원의 분류 기준에 따라 해양관광자원을 분류하면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III-1〉

해양관광자원의 분류



2. 국내 해양관광자원 분포

1) 자연자원

연안 공간은 해상통로와 연결되는 입지성과 자원성, 경관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용도에 적합한 연안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희귀성을 가지며, 각 용도에 적합한 연안공간의 분포는 자연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연안 공간은 자연자원과 비슷한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연안공간 중 해양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는 해수욕장, 해양 경관지, 해양스포츠 공간, 바다낚시터, 갯벌, 철새도래지(探鳥地), 바닷길, 일출경관지 등을 들 수 있겠다.

(1) 해수욕장

해수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해양관광 활동이다. 우리나라에는 수백개의 해수욕장이 분포하고 있으나, 기후여건으로 인해 7~8월 중 약 6주 동안만 활동이 가능해서 해수욕은 극심한 계절성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해수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해양관광은 짧은 기간 동안의 집중적인 활동을 수반하므로 긴 비수기 중의 자원 이용률 저하, 성수기 중의 극심한

교통체증 유발, 쓰레기 및 오폐수의 집중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수욕장에 대한 확정적 정의는 없으나 일본 관광협회는 “불특정 다수인이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으로서 안전하게 수영하거나 즐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환경, 관리기구를 갖춘 공공적인 해변”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⁹⁾ 우리나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에 나타난 휴양시설 중 해수욕장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 등이 있을 것
- 인명 구조용 구명정·망루대 및 응급처치장비 등 시설이 있을 것
-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보다 구체적으로 해수욕장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자연조건은 첫째, 패총 일수가 많을 것(최소한 2주 이상), 둘째, 해수욕 기간 중 수온 23℃ 이상, 기온 24℃ 이상을 유지할 것, 셋째, 파고가 0.7m 이하일 것, 넷째, 일정 수질을 유지할 것(COD 2ppm 이하, 대장균 1,000MPN/100ml 이하 등), 다섯째, 해변의 저질이 모래로 구성되어 있을 것, 여섯째, 길이 500m 이상 폭 100m 이상, 경사도 2~10도 정도의 해변공간을 갖출 것, 일곱째, 하구지역이 아닐 것 등이다.

각 시·도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는 310개의 해수욕장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해수욕장은 자연여건, 입지유형 및 크기 등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해안 해수욕장은 수도권으로부터의 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많은 해수욕객이 찾고 있다. 자연여건은 해안이 완만하고 파도가 비교적 잔잔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간만의 차가 심하고 해수의 탁도가 높으며 모래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근래에는 강원도를 찾는 해수욕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서해안의 해수욕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해안의 해수욕장은 기후가 좋고 경관이 수려하며 주변에 풍부한 문화유

19) 서태양, 전계서, 1991, p.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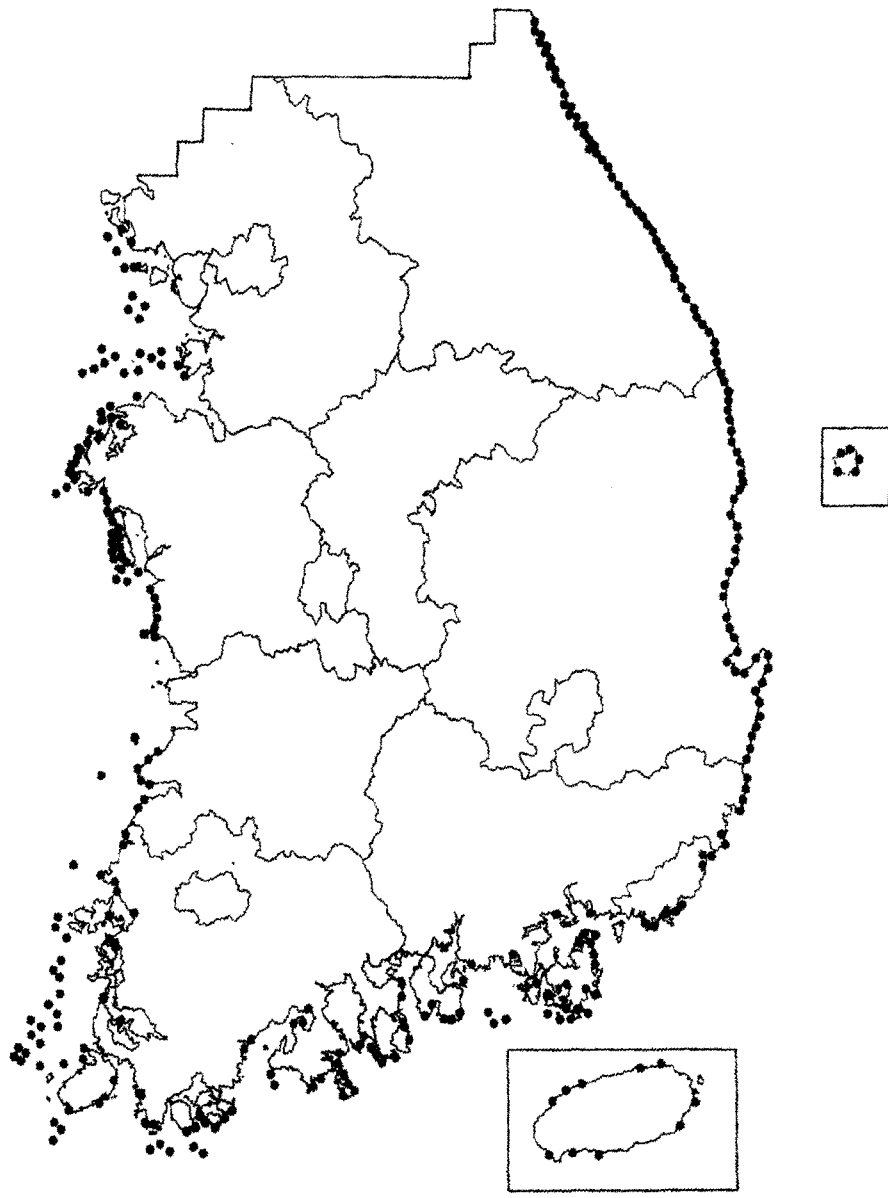
적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도서 및 벽지에 위치하는 해수욕장이 많아 교통 접근성이 불량한 편이다. 남해안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두 개의 해상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공원 내 도서지역에는 자연 조건이 양호한 소형 해수욕장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마산, 통영, 진해, 거제도 등 도시 근교에는 중간 규모의 해수욕장이 분포하고 있다.

〈표 III-1〉 시·도별 해수욕장 분포 및 특징

지 역	개 소	주요 해수욕장	특 징
경 기 도 및 인 천	27	을왕리, 하나계	- 해수욕장 수는 많지 않으나 드넓은 갯벌과 황혼의 아름다움이 일품
충 남	40	대천, 만리포, 몽산포, 무창포	- 대형 해수욕장이 많음 - 해안이 완만하고 파도 등 기상여건이 양호 하나 해수가 탁류인 것이 단점
전 북	9	변산, 위도	- 해안이 완만하고 기후여건 양호 - 주위 경관 수려
전 남	84	송호, 명사십리(완도)	- 많은 해수욕장이 분포하나 소형 위주임 - 경관 수려한 도서형 해수욕장이 많음
경 남	38	상주, 진하, 일산, 학동	- 남해지역은 기후여건 양호하고, 기암절벽 등 주변 경관자원과 어우러짐 - 인근 도시지역 발달로 해수욕객은 많은 편
부 산	5	해운대, 광안리, 송정	- 도시근교형으로 대형 해수욕장 중심
경 북	44	칠포, 관성	- 포항, 경주 인근의 도시근교형 해수욕장이 많음
강 원	49	경포, 망상, 주문진	- 맑은 해수와 양질의 모래가 장점이나, 수 심이 깊고 수온이 낮아 해수욕 기간이 짧 은 것이 단점임 - 타 시·도에서 온 해수욕객이 많음
제 주	14	중문, 협재, 함덕	- 화산해안으로 흑색 사장이 많고 특히 패사 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이 분포
계	310		

〈그림 III-2〉

전라남도 해안선



동해안의 해수욕장은 맑은 해수와 양질의 모래가 장점이나,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아 해수욕 기간이 짧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해안의 단조로운 해안선을 따라 약 80여개의 해수욕장이 분포하고 있는데, 최근 동해고속도로의 개통과 해안도로의 확장에 따라 많은 해수욕객이 모이고 있다.

연평균 기온 14.5℃ 이상의 난대성, 해양성 기후를 가진 제주도에는 남국의 이미지를 풍기는 14개의 해수욕장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흑사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삼양해수욕장, 패각 백사장으로 이루어진 협재 해수욕장, 문주란 자생지인 토끼섬을 이웃하고 있는 세화해수욕장 등이 유명하다.

지역적으로 연간 입장객수 수백만명 이상의 대형 해수욕장은 주로 부산과 충남에 많이 분포하며,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에는 경관이 매우 수려하나 접근성이 불량한 도서형 소규모 해수욕장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2) 스포츠형 해양 레크리에이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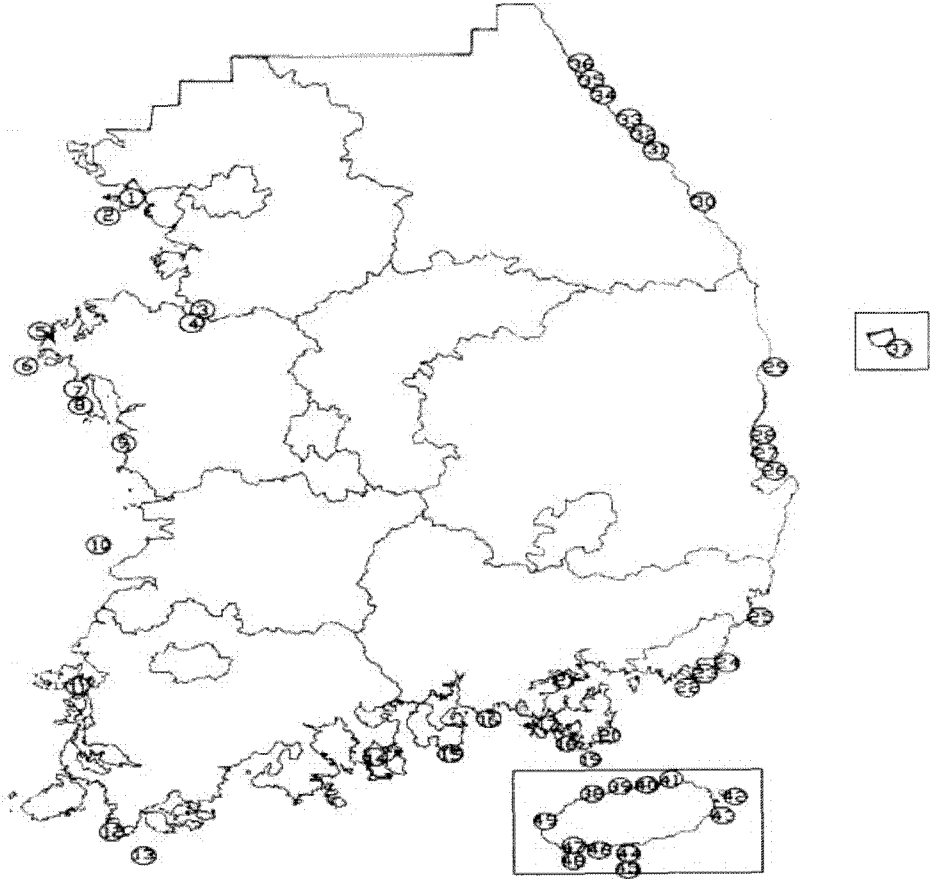
해양은 자연환경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연조건이 요구된다. 즉 각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적합한 해양공간은 자연조건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상태에서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적합한 해양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조형 기술을 적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많은 초기투자가 필요하고 환경에의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반도국가로서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우리나라에는 자연조건을 갖춘 비교적 많은 해양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어우러져 천혜의 관광자원이라 하여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때로는 주변 수산활동에 의해 공간개발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스낵 스쿠버와 바다낚시, 요트 공간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같은 갈등요인은 레크리에이션 공간 개발에 대한 어촌사회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 적절히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해양 레크리에이션 공간의 분포는 <그림 III-3>에 나타나 있다.

〈그림 III-3〉

국내 주요 스포츠형 해양 레크리에이션 공간



1. 두물머리요트장 2. 회래 수상스키 3. 아산호 윈드서핑 4. 삽교호 윈드서핑
5. 태안반도 다이빙 6. 가의도 다이빙 7. 거야도 다이빙 8. 안면도 다이빙
9. 대천 윈드서핑 10. 고군산도 다이빙 11. 홀통 윈드서핑 12. 송호 윈드서핑
13. 중리 청소년 해양훈련장 14. 여천 요트장 15. 상주 수상스키, 윈드서핑
16. 남일대 윈드서핑, 수상스키 17. 충무 요트장 18. 비진도 윈드서핑
19. 소매물도다이빙 20. 지세포 요트장 21. 당항포 요트장 22. 태종대 윈드서핑
23. 부산 해양스포츠 학교 24. 수영만 요트장 25. 진하 윈드서핑 26. 포항다이빙
27. 홍해 다이빙 28. 청하 다이빙 29. 후포요트장 30. 삼척 윈드서핑 31. 경포 윈드서핑
32. 경포 번지점프 33. 강릉 요트장 34. 낙산 다이빙 35. 속초 윈드서핑 36. 속초 번지점프
38. 용연계곡 래프팅 39. 삼양래프팅 40. 함덕윈드서핑 41. 이호 윈드서핑
42. 우도 다이빙 43. 신양 윈드서핑 44. 범섬 다이빙 45. 문섬 해저유람선
46. 중문 윈드서핑 47. 화순 윈드서핑 48. 형제도 다이빙 49. 비양도 윈드서핑

① 요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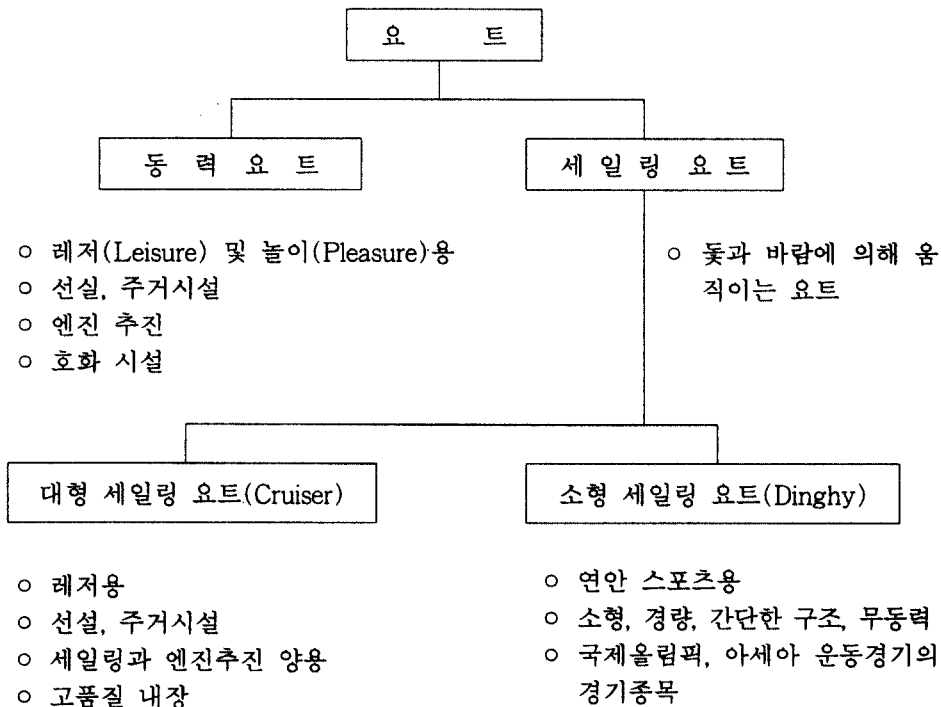
요트에 적합한 가장 중요한 자연조건은 바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트에는 엔진을 갖춘 동력요트도 있지만, 돛을 이용하여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세일링 요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그림 III-4〉 참조).

또한 크루즈형 대형 세일링 요트나 동력요트의 정박을 위해서는 해변에서 어느 정도의 수심이 요구된다. 또한 요트의 전복사고 시 구조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25℃ 정도의 수온을 유지해야 안전한 요트장이라 할 수 있다. 요트 공간으로서 요구되는 자연조건을 정리하면 〈표 III-2〉와 같다.

우리나라에는 7개의 해안 요트장과 2개의 내수면 요트장이 개발되어 있다. 이 중 대형요트를 위한 정박시설을 갖춘 곳은 부산 수영만 요트장과 충무요트장 두군데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형 세일링요트(dinghy)용이다.

〈그림 III-4〉

요트의 종류



〈표 Ⅲ-2〉

요트공간에 요구되는 자연조건

	최 적	한 도
풍 속	소형 5m/초, 대형 10m/초	소형 15m/초, 대형 25m/초 이하
정 박장 수심	3.5m 이상	소형요트일 경우 2m 이상
수 온	15℃ 이상	25℃ 이상
간 만 의 차	적을수록 유리	1.5m 이하

지역별로 요트 공간의 여건을 살펴보면,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커서 요트장을 개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다도해 지형으로 이루어진 남해안은 기후여건과 주변경관으로 보아 요트를 즐기기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이 지역에는 수산 양식업이 발달하여 요트장 개발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여천 요트장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전남 요트협회에서 개발한 여천 요트장은 수로 주변에 무허가 양식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요트협회는 지역 어민과의 갈등 끝에 결국 수로 주변의 양식장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하였다. 그 결과 좁은 수로를 따라 해역으로 일정거리 이상 나가서야 요트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고, 일반 시민들은 하얀 요트가 바람을 가르며 운항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표 Ⅲ-3〉

우리나라의 요트장 현황

요 트 장	위 치	비 고
한 강 양 화 요 트 장	양화대교	소형 세일링요트 용
부 산 요 트 장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393	300척 수용규모 마리나
여 천 요 트 장	전남 여천시 소호동	소형 세일링요트 용
아 산 만 요 트 장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 권관3리	소형 세일링요트 용
강 룡 요 트 장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진리	소형 세일링요트 용
대 천 요 트 장	충남 보령시 신흥동 대천해수욕장	소형 세일링요트 용
충 무 요 트 장	경남 충무시 도남동	82척 수용규모 마리나
후 포 요 트 장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해수욕장	소형 세일링요트 용

자료 : 대한 요트협회, 1997.

요트를 즐기기 위해서는 순풍이 요구되나 우리나라의 하계에는 무풍기간이 있어서 요트를 즐기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²⁰⁾ 유럽에는 하계에도 항상 순풍이 불어 요트를 즐기기엔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요트장 개발은 매우 부진하다. 일본에는 1994년도 현재 전국에 433개소의 요트장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500척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요트장만 9개소가 있다고 한다. 일본의 요트장은 주로 정온수역의 반폐쇄형 해역이라 할 수 있는 동경만 이남의 相模灣, 伊勢灣, 大阪灣 등에 많이 개발되어 있다.

② 윈드서핑

길이 2m 전후의 보드를 조절하여 파도의 경사면을 타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에는 서핑과 윈드서핑 두 종류가 있으며, 이를 합하여 보딩(boarding)이라고도 한다. 서핑은 보드만을 가지고 즐기는 레크리에이션으로서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되어 급속히 보급되었다. 윈드서핑은 1970년대 역시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서핑보드에 돛을 달아 바람으로부터 추진력을 얻어 파도가 약한 곳에서도 바다를 즐기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서핑은 돛의 도움없이 파도타기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윈드서핑에 비해 큰 파도를 필요로 하며, 그만큼 더 역동적인 활동이다. 우리나라 연안의 해상은 서핑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국내에는 윈드서핑만 보급되어 있다.

윈드서핑은 미풍에서 강풍까지 어떠한 풍속에서도 즐길 수 있으므로 특별한 해상조건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안전대책이 많이 요구되는 종목이다. 다만 아직 초보자가 많은 국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바람이 약한 만이나 폐쇄형 해역이 윈드서핑에 보다 적절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윈드서핑의 최적지는 제주도 섬지코지 부근의 신양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다.²¹⁾ 그 외 윈드서핑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충남의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태안반도 일대, 광주 인근의 홀통해수욕장, 부산 태종대 지역, 강원도의 속초해수욕장, 제주도

20) 대한요트협회의 자문내용임.

21) 윈드서핑협회의 자문내용임.

의 이호해수욕장 등을 들 수 있다.

원드서핑은 안전대책만 확보되면 어촌사회와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어디 서나 즐길 수 있는 종목이다.

③ 다이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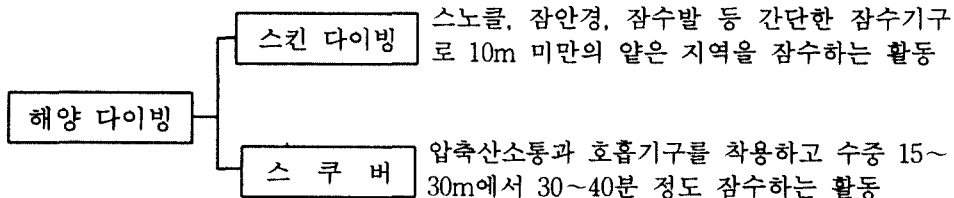
다이빙은 수중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수중생물과 친숙해지려는 것으로서, 수중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해중세계를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다. 다이빙은 스킨다이빙 혹은 스노클링(snorkeling)과 스쿠버다이빙으로 분류된다(〈그림 III-5〉 참조).

해양 다이빙을 위한 자연조건은 첫째, 조류가 심하지 않을 것, 둘째, 해저에 암반, 수초, 해양생물 등 볼거리가 풍부할 것 등이다.

다이빙 활동공간은 연안의 수산활동에 의해 크게 제약받는다. 우리나라에서 해중생물이 풍부하여 다이빙 활동을 즐기기에는 적합한 연안공간은 거의 대부분 공동어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조건 자체만을 보면 우리나라에 해양 다이빙에 적합한 연안 공간은 풍부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공동어장에 의해 다이빙 공간의 조성은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I-5〉

해양 다이빙의 종류



보통 해양 다이빙을 위한 리조트 지역은 어촌계와의 계약에 의해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에 따라 특정 해양생물의 채취가 금지되고, 리조트 개발자는 어촌계에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식이다.²²⁾

우리나라에는 충남의 태안반도와 안면도지역, 전북의 고군산 군도, 강원도

22) 다이빙협회 자문내용임.

낙산, 경북의 포항, 청하, 홍해, 제주도의 범섬, 문섬, 섶섬 등에서 다이빙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바다낚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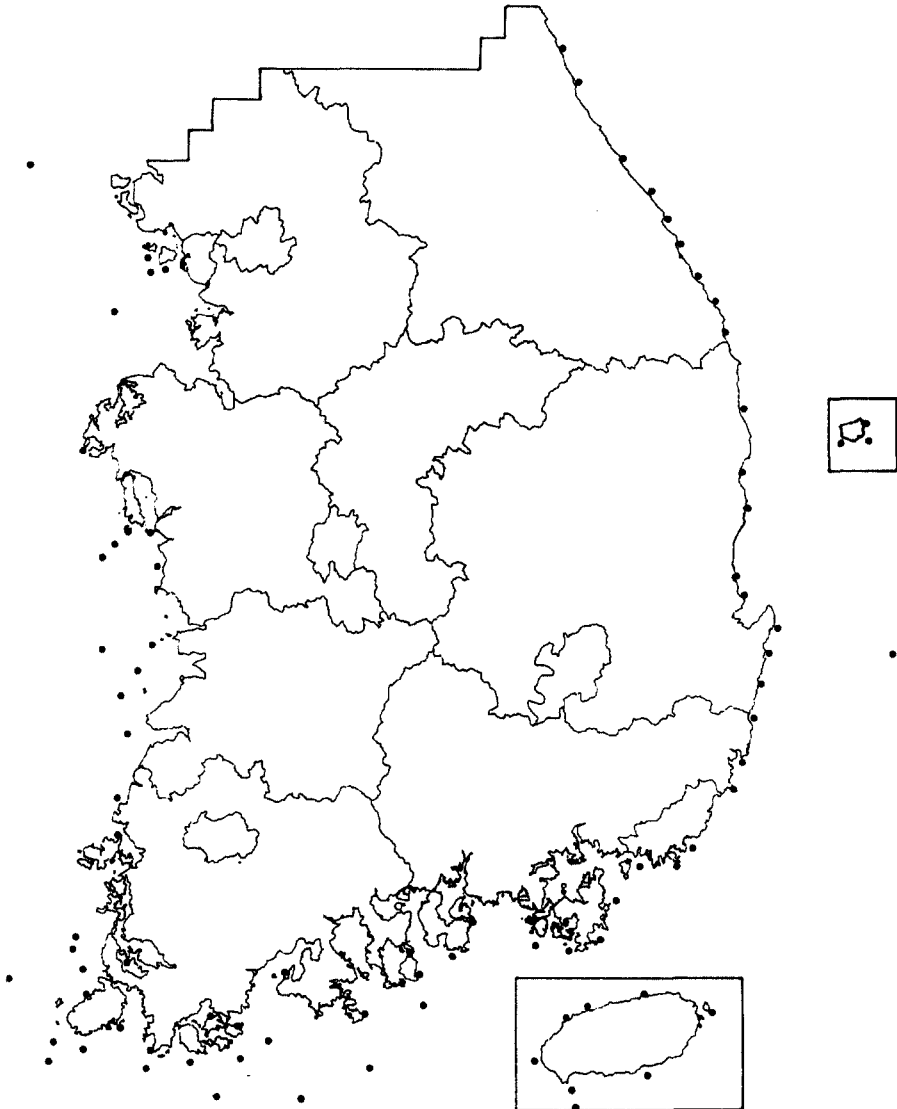
바다낚시는 활동장소에 따라 갯바위낚시, 부두낚시(방파제낚시), 해변낚시, 잔교낚시, 유어선낚시 등으로 분류된다. 바다낚시는 어자원이 있는 곳이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이기는 하지만, 낚시터 인근의 공동어장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한 바람과 파도에 의해 낚시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바다낚시를 위한 전용시설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바다낚시는 다른 해양 레크리에이션과는 달리 이미 대중화된 종목이기 때문에 유료 바다낚시터를 조성할 경우 상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다낚시를 위한 자연조건으로는 첫째, 어자원이 풍부할 것, 둘째, 낚시객의 안전을 위하여 파도가 너무 세지 않을 것, 셋째, 갯바위와 같이 해변으로부터 해변의 어자원 서식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돌출부가 있을 것 등이다. 바다낚시는 다른 해양 레크리에이션과는 달리 사계절 활동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해안을 따라 많은 바다낚시터가 부존하고 있다(〈그림 III-6〉 참조).

자연상태의 바다낚시터는 자연자원에 속하지만, 바다낚시를 위한 인위적 시설물이 설치된 낚시공원은 사회적 자원에 속한다. 일본에는 약 60개소의 바다낚시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1998년 8월에 개장한 경남고성의 동해낚시공원 1개소 뿐이다.

〈그림 Ⅲ-6〉

국내 주요 바다낚시터 분포



(4) 철새도래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해안에서의 探鳥(bird watching) 활동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해양관광 활동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어족 및 야생동물 보호기구(US Fish and Wildlife Service)의 추정에 따르면 2,400만명의 조류 및 야생동물 애호가들이 탐조 및 야생동물 관찰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간 약 180억달러(한화 21조 6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²³⁾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고, 북쪽으로 광활한 대륙과 동서남으로 바다가 연결되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많은 철새들의 경유지가 되고 있다. 조류의 날씬하게 다듬어진 몸매, 아름다운 털 빛깔, 고운 목소리는 다른 생물에게서 느낄 수 없는 매력이다. 최근에는 철새 도래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철새 서식지는 낙동강 하구 을숙도, 강화도의 길상면, 화도면 일대 갯벌, 웅진군 신도, 충남 천수만, 전남 순천만, 제주 성산포 지역 등을 들 수 있다.

낙동강 하구에는 철새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삼각주인 을숙도가 있다. 낙동강 본류와 죽림강 사이에는 거대한 삼각주가 이루어져 있고 외하구에 무수한 모래톱의 섬이 있어 철새인 물새들이 쉴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된다. 제일 많이 찾아오는 새의 종류는 오리류이고, 도요새류, 물떼새류, 논병아리, 가마우지류, 백로류, 갈매기류 등의 순서로 찾아온다. 그 외 수리류 및 매류도 볼 수 있고 하구의 갈대밭 주변에는 개개비류, 뜸부기류 등도 찾아온다. 또한 이곳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조류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희귀한 조류도 간혹 찾아오는 철새들의 정거장이다. 자연 문화재인 두루미, 고니, 독수리, 흰꼬리수리, 저어새, 황새 등이 찾는 유일한 철새 도래지이다. 계절에 따라 철새의 종류와 무리가 바뀌기 때문에 항상 다른 종류의 새들을 볼 수 있다.²⁴⁾

강화도 일대의 갯벌에는 전세계 개체수 1천여 마리의 10%에 해당하는 100여 마리의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영종도에는 민물도요가 전세계 개체수의 8.8%인 1만 1천여 마리, 개펄이 전세계 개체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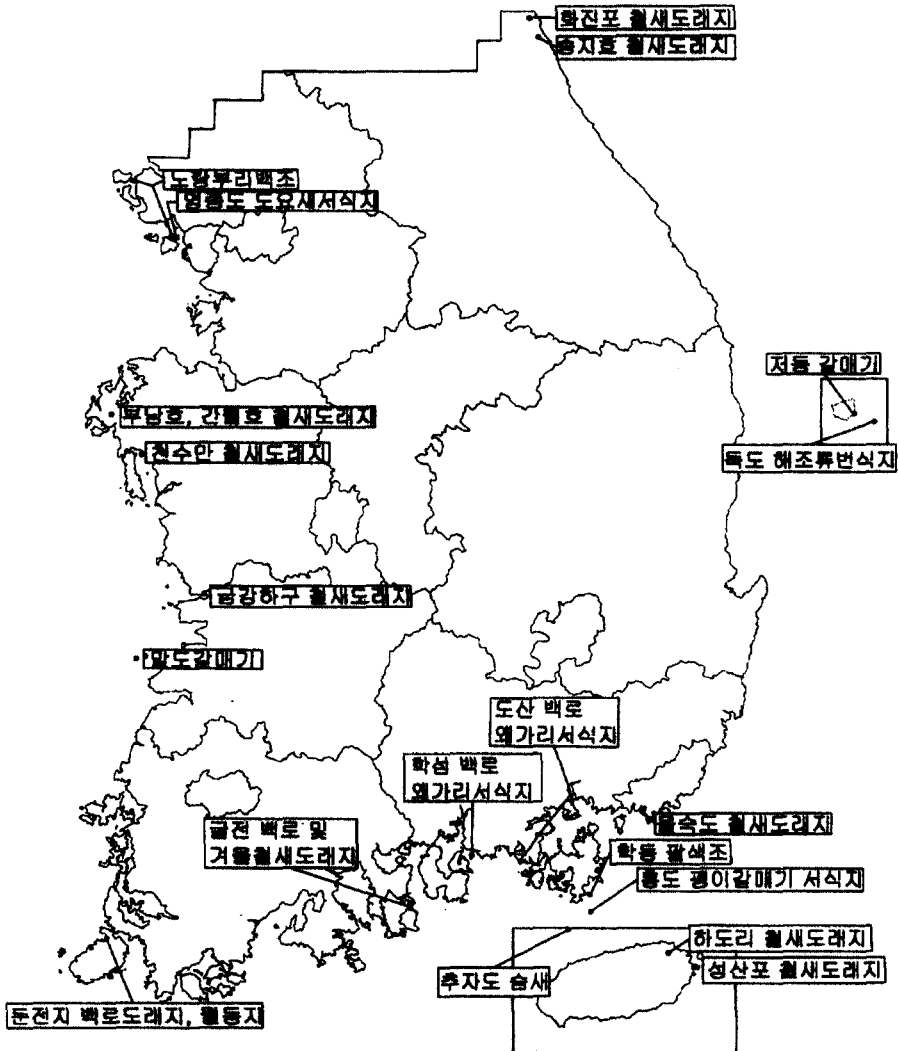
23) Cicin-Sain, B., et. al., 전게서, 1998, p.7.

24) 한국의 새와 철새 도래지, 윤무부, website <http://bric.postech.ac.kr/species/bird/korbird/>.

2.3%인 약 560마리, 뒷부리 도요가 전세계 개체수의 1.4%인 500여 마리가 관찰되었고, 영흥도에는 전세계 개체수가 2천여 마리에 불과한 검은머리 물떼새가 40여 마리나 발견되었다.

〈그림 III-7〉

국내 주요 철새 도래지 분포



강화도 일대의 갯벌은 물새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약인 람사조약의 람사사이트 지정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밖에 서산 천수만지역에는 최근 세계적 희귀조인 황새가 6마리나 발견된 적이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90여 마리가 나타났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천수만에는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와 검은머리물떼새, 희귀조인 장다리물떼새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기타 자연자원

해양은 그 자체가 훌륭한 경관을 제공하지만, 자연의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은 해양의 경관을 더욱 특징적으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 또한 어떤 지역에서는 주변의 육지 경관과 어우러져서 해양의 경관이 더욱 돋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물이나 현상,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 역시 관광의 매력을 증진시키는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기암괴석 및 해안절벽

우리나라 해양에는 기암괴석, 해안절벽들이 많이 분포하는데 그 자체가 관광의 대상물이 되거나 혹은 해양경관의 매력을 더해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 남해안의 한려, 다도해 등 두 군데 해상국립공원 내에 분포하는 기암괴석, 해안절벽들은 그 지역의 주요한 관광 매력물이 되고 있다. 그밖에 백령도 부근, 울릉도, 제주도 등에서도 많은 기암괴석들이 존재한다(〈표 Ⅲ-4〉 참조).

② 일출경관지

최근에는 새해를 맞아 일출장면을 보기 위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일출경관지로 유명한 지역은 지리상 동해안에 주로 분포하나 남해와 서해에도 일출경관지로 유명한 곳이 있다.

최근 TV 드라마 “모래시계”와 CF 촬영현장으로 유명해진 강릉시의 정동진은 동해안 최고의 일출경관지로 부상하고 있다. 강릉시에 의하면 1998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정동진을 찾은 관광객은 모두 121만명으로 1일 평균 3,610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997년도 1일 관광객 1,870명

〈표 III-4〉

우리나라 해안의 기암괴석, 해안절벽 경승지 분포

지 역	자 원
서 해 안 지 역	웅진군(백령도 부근) 연봉바위, 형제바위, 물범바위, 코끼리바위, 촛대바위, 사자바위 등 태안군 수정바위, 무랭이바위, 독립문바위, 사자바위, 돛대바위 변산반도 채석강, 적벽강
다 도 해 해 상 국립공원 지역	금오도 부근 거북암, 촛대바위, 흔들바위, 마담바위, 검바위 등 거문도-백도 신선바위, 파식동굴군, 용굴 자로도 부근 활개바위, 문바위, 삼불기암, 텅텅바위, 죽봉동굴, 꼭두미, 부채바위 소안-청산도 사자바위, 글쓴바위 조도 부근 방아섬, 백야도, 구명독거, 병풍도 등 비금-도초 폭포암, 누운바위, 매바위, 솔뚜껑바위, 농간바위 등 흑산도-홍도 대문바위, 촛대바위, 칠성굴 등
한 러 해 상 국립공원 지역	남해지구 돼지바위, 일원봉, 장군암, 삼불암, 팔선암, 형리암, 천계암, 천구암, 코끼리바위(사천) 등 통영지구 글쓴이바위, 용굴, 병풍암, 촛대바위, 할매바위, 영감바위 등 거제지구 거제 해금강, 십자동굴, 만물상, 용두암(학동만), 오색바위 여수지구 소라바위, 용굴, 병풍바위
동 해 안 지 역	울릉도 통구미거북바위, 만물상(학포), 곰바위, 구멍바위, 삼선암, 관음쌍굴, 북저바위, 촛대바위 등 강릉 : 부채바위(정동진 부근) 삼척 : 촛대바위 울산 : 대왕바위
제 주 도	용두암, 도두해안, 일출봉, 십지코지, 외돌괴, 대포해안 주상절리, 용 머리(안덕면) 등

보다 두 배 가까이 성장한 규모이다. 바다와 직선거리가 50m에 불과하고 백사장과 철길이 붙어 있는 시골 간이역인 정동진 부근에는 이미 특징있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카페, 식당, 모텔로 사용되고 있다. 정동진의 경우는 관광개발에 있어 매스컴을 통한 홍보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정동진의 경우와 같이 영화촬영, TV 촬영으로 인해 관광지의 인기가 급증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밖에 유명한 일출경관지로는 여수 향일암, 강릉시 경포, 울진 월송정, 포항구룡포, 당진왜목마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당진 왜목마을은 서해안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길게 뻗은 꼬리형의 지형에 위치하는 덕분에 동쪽 수평선을 볼 수 있다(<그림 Ⅲ-8> 참조).

③ 바다길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간조시 해저의 사구가 드러나는 현상도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학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바다길을 걷는 일은 자유로움과 신비감을 만끽하는 체험이 되기 때문이다.

전남 진도군 회동리에서는 음력 5월 바닷길이 갈라지는 날에 토속신앙인 영등제²⁵⁾가 거행되고 있다. 영등제는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국내는 물론 외국 관광객까지 찾아 오는 유명한 행사로서 약 3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한다.

이밖에 바다길이 열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제주도, 간월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대략 13지역에 이르는데, 모두 서해안과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Ⅲ-8> 참조). 최근에는 바닷길이 열리는 현상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표 Ⅲ-5> 참조).

25) 영등제는 한 전설로부터 유래되었음. 회동리의 옛 지명은 호랑이가 많이 출몰한다고 하여 호동리였음. 호환이 잦자 마을사람들은 배를 타고 모도로 떠났는데 뽕 할머니 한 분만 남게 되었음. 뽕 할머니가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싶어 용왕에게 기도하자 바닷길이 열렸음. 하지만 기진한 할머니는 가족을 만나자 말자 숨을 거뒀다고 함. 그 이후로 마을사람들이 해마다 뽕 할머니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영등제의 기원이 되었음(전라남도 관광홍보 자료, 1998).

〈표 III-5〉

신비의 바닷길 관광상품

관 광 상 품	특 성
바다의 생생한 숨결 (서신 ↔ 제부도)	하루에 두 번 썰물때마다 2km에 달하는 바닷길이 6시간 동안 열림
신비한 바다속 여행 (무창포 ↔ 석모도)	무창포 해수욕장 백사장 앞에는 낚시터가 있는데, 매월 사리 때가 되면 5~6회 정도 바닷길이 열리는 기현상이 벌어짐
놀라운 기적의 현장 (하섬 ↔ 마포리)	하섬에서 마포리까지 매월 2회 정도 바닷길이 열리는 데 특히 11월에서 2월까지 열리는 바닷길이 볼만함
모세의 기적 (진도 회동 ↔ 모도)	진도군에서는 매년 봄 가을에 회동에서 모도 사이 2.8km 바다가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바닷길이 해변 위로 드러나는데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음
7개섬이 하나로 (사도 ↔ 추도, 진대섬, 시루섬, 장사도, 나팔, 연목)	작은 섬 사도에서는 정월대보름과 음력 2월 15일에 두 차례 7개의 섬이 3km에 걸쳐 하나로 이어지는 현상이 일어남

자료 :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한국관광연감」, 1997, p.805.

④ 갯벌

최근에는 갯벌을 이용한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품은 대부분 서해안의 갯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주로 갯벌 탐험 및 체험, 생태계 관찰 및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한국산업교육본부는 1998년 7월 경기 화성군 대부도 갯벌에서 해병대의 훈련을 도입한 '불가사리 훈련캠프'를 개최한 바 있다.

2) 인문자원

인문자원이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가공된 유·무형의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재, 박물관, 스포츠·레저시설, 특산물, 음식요리 등의 유형자원과 풍습, 문화·예술, 축제 등의 무형자원을 포함한다. 과거에는 관광수요가 자연 관광자원에 편중되었으나, 근래에는 국가간 문화교류 및 교역의 확대에 따라 사회·문화적 관광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문관광자원을 대상

으로 하는 문화관광²⁶⁾은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세계관광 기구에 의하면 모든 관광여행에서 문화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이르며 그 수요는 매년 15% 정도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인문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은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승지관광보다 더 많은 관광지출을 유발하고, 주로 고학력, 고소득층에 의해 이루어지며,²⁷⁾ 경승지관광에 비해 계절성이 약하므로 관광경영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흔히 '문화의 세기'로 일컬어지는 21세기를 앞두고 세계 각국은 자국 문화의 상품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²⁸⁾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해양관광의 대상이 되는 자연자원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나 인문자원은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해양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해양박물관 하나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매우 오랜 수산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세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해양문화를 꽃피웠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역사와 전통, 풍습, 전승문화로부터 해양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진흥에 큰 장애가 되고 계절성의 한계는 이러한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문화적 자원

해양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자원으로는 향토 축제, 해산 특산물, 수산물을 재료로 한 음식요리, 수족관, 해양관광시설 등이 있다. 반면 문화재나 해양박물관, 공예품 등의 개발은 매우 부진한 편이다.

26) 문화관광에 대한 정의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사전적 의미는 "유적, 유물, 전통공예, 예술 등이 보전되어 있거나 스며있는 지역으로의 관광, 또는 과거에 초점을 두고 관광하는 행위"임(한국관광공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1997). 문화관광의 대상은 건축물, 예술품, 축제, 이벤트, 종교적 성지, 민속 또는 원시문화 등으로서, 이는 모두 인문관광자원의 범주에 포함됨.

27) 최용준, 「문화관광자원의 해외홍보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p.10.

28) 문화관광부, 「국민의 정부 새 문화관광정책」, 국정자료 98-5, 1998, p.125.

① 향토축제

국내에서 개최되는 해양관련 향토축제는 수산업과 관련된 제전, 역사를 소재로 한 축제, 예술공연 혹은 비치스포츠를 위주로 한 해변축제, 바다음식과 관련된 축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산업과 관련된 제전은 많은 어촌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²⁹⁾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형 제전으로 서해안 풍어제를 비롯해 8개 정도가 조사되었다. 역사를 소재로 한 축제로는 장보고 대사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장보고 축제, 이순신 장군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명량대축제, 옥포대첩 기념축전, 한산대첩축제 등이 있다. 주로 해수욕 성수기에 개최되는 해변축제는 부산바다축제, 경포해변축제, 제주시의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협재 해수욕장의 해변축제, 비치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제주 국제 트라이슬런 대회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갯벌을 대상으로 한 해양생태계 관련 축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충남대천해수욕장에서는 1998년 7월 '진흙탕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달 충남 보령에서는 머드축제가 열려 머드분장대회, 머드 조각만들기, 갯벌달리기 대회 등이 펼쳐진 바 있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해양관련 축제 개최는 남해안 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해안에서는 부진한 편이다.

② 해산특산물 및 수산물을 이용한 음식요리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어서 해안에서 신선한 수산물을 맛보는 일은 관광이 지닌 큰 매력이다. 관광지 주민의 입장에서 해산물과 바다음식의 판매가 중요한 소득원이 된다. 판매수입이 대부분 지역 어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지역 특산물과 바다음식의 개발은 복지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해산특산물과 바다음식이 개발되어 있다.

29) 수산업과 관련된 제전에는 풍어제와 당산제가 있는데, 국내 어촌계가 풍어제를 지내는 비율은 32.5%, 당산제를 지내는 비율은 36.1%로 추정되고 있음(농림부,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1996, p.82).

〈표 III-6〉

국내 해양관련 주요축제 현황

시·도	행 사 명 칭	시기 (월)	장 소	행 사 내 용
경 기 · 인 천	서해안풍어제	4	소 래 포 구 등	배와 선원의 안전 및 풍어기원, 배연신굿, 대동굿
충 남	황도봉기 풍어제	음1	안 면 읍	황도봉기 풍어제
전 북	위도 띠벳놀이	음1	부 안 군	위도 띠벳놀이 재연
전 남	항일암 일출제	1	여천시 항일암	신년 일출
	진도 영등축제	4	진도군 고군면	진도 셋김굿, 진도만가, 남도 들 노래
	진남제, 남해안 생선요리 축제	5	여 수 시	고유제, 영당 풍어제, 향토품물난 장, 가장행렬, 전통음식 시식회 등
	장 보 고 축 제	7	완도군 완도읍	해상 출정식, 청해진 바다음식 축 제, 장보고 무역항로 탐사
	신비의 바닷길 여 름 축 제	7	진도군 고군면	셋김굿, 진도만가, 해상퍼레이드 등
	명 랑 대 축 제, 초 의 문 화 제	10	해남군 문내면	명랑해전 시가행진, 한·중·일 문화공연, 셋김굿, 건짐굿
경 남 · 부 산	옥 포 대 첩 기 념 제 전	음5	옥 포 대 첩 기 념 공 원	옥포대첩기념 제전제례 행사
	부 산 바 다 축 제	8	부 산 주 요 해 변	바다축제
	한 산 대 첩 축 제	10	통 영 시 일 원	해상 대연주회, 가장행렬, 대풍어 제, 민속공연, 승전문 공연
	자갈치 문화관광 축 제	10	부 산 자 갈 치 시 장 일 대	가장행렬, 창작무용제, 남포노천 카페 설치, 자갈치 아지매 솜씨 자랑 등
경 북	영 일 만 축 제	10	포 향 시	동해별신굿, 가배놀이시연, 민속 공연
강 원	경 포 해 변 축 제	7	경포대해수욕장	지역전통문화, 예술단체 문화이 벤트
	동 해 무 룡 제	10	동 해 시	풍어제, 풍년제, 자매도시간 친선 경기 등
제 주	칠 머 리 당 굿	3	제 주 시 라 봉 공 원	어민생활과 생업의 풍요를 기원 하는 영등신에 대한 굿
	제주 국제트라이 애 슬 런 대 회	7	제 이 호 해 수 욕 장	수영, 싸이클, 달리기
	한여름밤의 해변 축 제	7, 8	제 해 변 공 연 장	음악회, 무용, 연극 등
	해 변 축 제	8	협재해수욕장	원드서핑, 풍물놀이, 경비행기 축 하공연

자료 : 한국관광공사, 「지방관광 활성화 협력방안」, 1997에서 편집.

〈표 III-7〉

지역별 해산 특산물 및 향토요리

시·도	향 토 요 리	특 산 물
경 기· 인 천	오징어 순대, 뽕어국, 오징어젓, 조기젓	연평도 : 조기 덕적도 : 새우
충 남	게장, 굴냉국, 미꾸라지회, 어리굴 젓, 모시조개 냉이국 등	아산만 : 백어포, 태 안 : 왕새우 보령시 : 꽃게, 김, 젓갈 간월도 : 어리굴젓
전 북	무어회, 생선회, 생선찜	부 안 : 젓갈류, 바지락, 꽃새우, 부 안김
전 남	산낙지, 홍어회, 홍어찜, 노래미탕, 바지락회, 간재미회, 새우젓 등	영 광 : 굴비, 김, 굴, 진 도 : 미역 흑산도 : 굴비, 목 포 : 갈치, 산낙지, 흑도미, 고시락
경 남· 부 산	생선회, 아구찜, 복구이, 대구탕, 멸 치회, 전복죽 등	울 산 : 돌미역, 통 영 : 미역 충 무 : 김, 굴, 마 산 : 멸치 사 천 : 돌미역, 쥐치포 진 해 : 피조개
경 북	물회, 해물잡탕, 영덕 대게, 오징어 요리(울릉도)	울릉도 : 오징어 구룡포 : 과메기 경 주 : 멸치젓
강 원	동태구이, 오징어무침, 오징어회, 미 역쌈 등	양 양 : 오징어젓, 연어 고 성 : 창란, 명란, 명태포 삼 척 : 젓갈류, 황태포, 미역 속 초 : 명란·창란, 오징어, 청어젓 미역
제 주	전복소라회, 게국(강이국), 전복 죽, 비계회(상어류), 물회, 복쟁이 지짐 등	왕새우, 갈치, 전복, 소라, 농어

자료 : 1) 서태양, 전계서, p.308~311.

2) 한국관광공사, 「지방관광 활성화 협력방안」, 1997.

③ 수족관

수족관은 일반인들의 직접체험이 어려운 해중 또는 해저의 생물상을 인위적인 시설을 통해 지상에서 표현하기 위한 시설이다. 즉, 공간특성상 일반인이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해양을 간접 체험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수족관 개발수준은 타 선진해양국가에 비해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와 있다. 현재 정상적인 수족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곳은 63수족관이 유일하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수족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개발전망은 밝은 편이다.

1990년대 들어 해양수산부에 의해 해양수산종합과학관의 명칭으로 전남, 경남, 제주, 경기 지역에서 수족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남 여수의 경우 1998년 5월에 개관되었다. 그러나 본 시설은 수족관이라기보다는 전시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연구기능에 치중되어 비교적 많은 관람객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Ⅲ-8〉은 국내에서 완공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수족관 관련시설을 정리한 것이다. 63수족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이 현재 계획상태이거나 개관초기에 놓여 있어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 중문수족관의 경우 해외의 현대식 수족관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개발중이며 인근의 돌고래 쇼장, 마리나시설과 연계하여 개발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조달 문제로 현재는 추진을 중단한 상태에 있다. 부산 해운대에 계획중인 수족관은 국내 수족관업체와 외국자본과의 결합으로 투자되는 최초의 외자유치 수족관 개발사례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미비와 사전조사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에 추진중인 해양수산종합과학관은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단계에 있다.

④ 기타 해양관광시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래 전부터 미신, 외세의 영향 등으로 바다를 위협하게 생각하여 멀리 하려는 정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국민 정서는 현대까지 이어져 해양관광이 국토의 자연여건상 그 개발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악관광에 비해 충분히 각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수한 국내 여건에서는 해양 간접체험시설이 국민들과 바다를 연결시켜 주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해양 간접체험시설에는 수족관 외에도 해중전망탑, 관광용 잠수함 등이 있으며, 해상낚시공원, 해상호텔 등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회피하는 역사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양 간접체험시설이 유용하지만, 국내에는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63수족관, 에버랜드의 캐러비

〈표 III-8〉

한국의 수족관 유사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기본목표 (주요기능)	사업 주체	입지특성	부지 면적 (평)	총 사업비 (억원)	사업 기간	현재까지 추진내용	관리운영 상황및 계획
전남수산 종합관	관광, 교육, 전시(보존), 연구(종묘배 양장)	전라 남도	군유지, 해안방풍림 지대	1,949	97	1991~98	1998. 5월 개관	전라남도
통영해양 박물관	관광, 교육, 전시(보존)	경남 통영시	한려해상공원중심 부 기초 설계시 부 지선정	전체 81,200	50	1995~ 2000	시설설계 완료	박물관 (통영시)+ 기타(민영)
부산시립 세계해양 생물전시관	교육, 전시 (보존, 훈련, 연구)	부산 직할시	금정산성공원내(동 래동물원·동래온 천장·금강식물원 ·금강공원과인접)	2,023	8	1993~ 2000	· 1전시관 기 존시설활용 · 2전시관 실 시설계완료	부산시
국립수산 진흥원 수산과학관	교육, 연구 (전시물), 보존 (토종넙치)	해양 수산부	국립수산진흥원내 (청정해역과 인접, 교통여건 불리)	2,800	120	1991~96	1997. 5월 개관	해양수산부
경기도 해양박물관	연구, 전시 (보존), 교육, 관광	경기도	대부입해관광사업 지구내(수도권 근접, 접근성 용이, 인천 국제공항, 서해안 개 발계획과 연계 가 능)	24,820 (도유지)	515	1998~ 2004	· 민간투자 관광단지 조성계획과 연계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추진중	경기도
강원도 수산과학관	문화, 전시, 교육, 관광	강원도 속초시	롯데관광지조성(Ma rine Park)계획 인 접지(설악산권 등 중 가 * 부지미확보	6,688	360	1995~ 2000	계획	강원도 속초시
부산직할시 해양박물관	관광, 교육, 전시(보존), 연구	해양 수산부	영도매립지대	65,000	5,520	1984~ 2002	계획	박물관 (부산시)+ 기타(민영)
제주도 해양 종합과학관	문화, 전시, 교육, 관광, 연구, 위락, 레저	용역 수행중	· 세계적인관광휴양 지· 천혜의 해안관 광자원 보유로 세계 적 관광 및 노비자 입국 가능 * 부지미확보	50,000	1,500	1998~ 2002	타당성 검토중	민영화 (운영법인)
63 수족관	관광, 전시	대한 생명	서울 시내 위치	1,100	100	1985 개관	연평균 100만명 관람	성지산업 (대생자 회사)
ASEM 수족관		대한무 역협회	ASEM 회관내에 위치				건설중	
해운대 수족관	관광	PANI & IAT	해운대 관광지내에 위치				설계중	
제주 증문수족관	관광, 전시	(주) 퍼시픽 랜드	증문단지 돌고래쇼 장과 연계	7,000	240	미정	건설중, 일부개관	(주) 퍼시픽 랜드

안배이의 성업을 보면, 해양 간접체험시설은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해상호텔, 해중 전망탑 등이 없다. 관광 잠수함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1척이 운행 중이며, 해상낚시공원은 1998년 8월에 처음으로 경남 고성에서 개장되었다.³⁰⁾

과거 몇몇 기업이 선박을 이용한 해상호텔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해상교통 안전을 위한 정부의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포기한 적이 있다. 그러나 1998년도 가을에 해양수산부는 자체 훈령을 개정하여 해상교통안전 확보, 해양오염 방지, 해안 풍광과의 조화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상호텔 건설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현재 몇몇 지역에서 해상호텔 혹은 해상박물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 해역에 해상호텔을 건립하기 위하여 한국과 프랑스, 미국의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³¹⁾ 또한 퇴역 군함을 이용한 해상 박물관 사업이 충청남도, 부산시, 동해시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³²⁾

(2) 산업 자원

산업 관광자원이란 대상시설의 원래 목적은 산업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나 그 자체가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거나 혹은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해양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산업 자원은 어항과 연안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0) 총 공사비 30억원이 투입된 경남 고성의 동해낚시공원은 1998년 8월 15일에 개장되었음. 국내 최초의 축제식 양어 낚시터이며 운영 주체는 개인임. 총 면적 6만평 중 각각 3만평의 양식장과 낚시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너비 2m, 길이 230m의 잔교가 설치되어 있음. 배후지 400여평에 식당, 횃집, 숙박시설, 매점 등의 5개 건물이 조성되어 있음.

31) 해상호텔은 인천국제공항근처인 인천 울왕동 산 33의 1 일대의 공유수면 4만 5천평에 건설되며 1999년 6월 착공, 2001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함. 해상호텔에는 지상 9층규모로 950개 객실외에 해양 및 해저공원, 대형수족관, 바다박물관, 마리나 요트장, 해양산책로, 국제회의실 등을 갖춘 계획임(한국일보, 1998. 11. 19일자).

32) 한국경제신문, 1999. 1. 8일자.

① 어항

어촌에 있어서 어항시설은 관광객 유치에 위한 중요한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다. 국내 많은 어촌지역에서 어항시설 배후에 활어직판장이나 횃집이 들어서서 성업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바로 건져 올린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기회는 바다낚시, 해수욕과 함께 어촌지역에 관광객이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³³⁾

〈표 III-9〉

기타 해양관광시설 현황

종 류	내 용	비 고
해상호텔 (해상레저)	- 여객선을 개조한 호텔 혹은 부유식 호텔이 있음 - 객실, 레스토랑, 바, 컨벤션홀 등으로 이용	- 외국의 사례 : 일본, 호주, 미국 등 - 국내 : 현재 추진 중
관 광 용 잡 수 정	수중다이빙에 따른 위험 없이 많은 사람에게 수중세계(해양생물, 산호초, 해중지형 등)를 재미있고 안락하게 안내	- 외국 : 캐나다, 스코틀랜드, 프랑스, 핀란드 등 - 국내 : 서귀포 앞바다에 취항중(1척)
해 중 전 망 탑	연안해역의 해양생물자원 보호와 해중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해중공원	- 외국 : 미국, 호주, 일본 등 - 국내 : 없음
해상낚시 공 원	해안선에서 바다로 뻗어나온 낚시 잔교와 관리탑 및 해양방목장으로 이루어짐	- 외국 : 일본 전국에 대규모 시설만 60개소에 이릅니다 - 국내 : 경남고성 동해낚시공원(1개소)
마 리 나	요트·보트 등을 보관하는 항만시설	국내 : 충무요트장 (82척 수용), 부산요트장 (300척 수용)

우리나라에는 1997년 1월 현재 그 이용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제1종 어항이 58개소, 이용범위가 한 지역으로 한정된 제2종 어항이 326개소, 주로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제3종 어항이 31개소 등 총 415개의 지정어항이 있고, 그 외

33) 어촌지역에 관광객이 가는 목적은 해수욕 64.9%, 바다낚시를 즐기기 위해서가 60%, 그리고 음식물을 맛보기 위해서가 46.9%로 나타나고 있음. 농림부, 전거서, 1996.

에 1,851개의 비지정 소규모 어항이 해안을 따라 산재해 있다.

② 항만

연안해운은 도서형 해양관광지를 연결하는 주요 접근수단이다. 연안항은 1997년 현재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도서민과 도서관광객을 위하여 102개 항로에 141척의 여객선이 288개 도서를 운항하고 있다.³⁴⁾ 연도별 여객 수송실적은 1995~97년 기간 중 연평균 약 8% 증가율을 보였다.

〈표 Ⅲ-10〉

시도별 어항 현황

(1997년말 현재)

시 · 도	지 정 어 항				비지정어항(소규모항)			총 계
	계	1종	3종	2종	계	육지부	도서부	
	415	58	31	326	1,851	1,051	800	
인천광역시	37	-	4	33	46	10	36	83
부산광역시	16	2	-	14	36	27	9	52
울산광역시	6	2	-	4	18	18	-	24
경 기 도	7	-	-	7	33	27	6	40
충 남	36	4	1	31	33	20	13	69
전 북	18	1	4	13	33	14	19	51
전 남	129	11	14	104	951	382	569	1,080
경 남	80	10	4	66	487	359	128	567
경 북	38	12	2	24	98	90	8	136
강 원	28	12	-	16	31	31	-	59
제 주	20	4	2	14	85	73	12	105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어항지정개발에 관한 연구」, 1998, p.18.

34) 해양수산부, 「해양관광 현황 및 진흥방안」, 해양정책국 내부자료, 1998, p.31.

〈표 III-11〉

연도별 내항여객선 수송실적

단위 : 천명

구 분	1994	1995	1996	1997
카 체 리	942	1,034	1,332	968
초 쾌 속 선	1,237	1,899	2,237	2,773
쾌 속 선	928	822	733	819
일 반 선	4,762	4,947	5,111	5,339
합 계	7,869	8,702	9,413	9,899

3. 해양관광자원의 해역별 특성

앞에서 살펴 본 해양관광자원의 분포를 종합할 때, 자원의 다양성 면에서 남해안은 가장 우수하고 서해안도 양호한 편이나, 강원도는 다소 떨어지고 있다.

먼저 자연자원의 분포를 보면, 서해안과 남해안은 갯벌, 철새 등 생태자원의 다양성이 높고, 복잡한 해안선과 내만구조, 그리고 많은 도서 등을 보유하여 지형적인 다양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해안은 해수욕과 경관지 중심의 단순한 자원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향토축제, 수족관 유사시설, 어항·항만, 기타 해양관광시설 등의 인문자원에 있어서도 남해안이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동해안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자원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표 III-12〉

해역별 해양관광자원 분포특성과 개발방식

해 역	분 포 특 성	개 발 방 식
남 · 서해안	- 해양성 생태자원의 다양성 높음 - 내만구조, 도서 등 지형적 다양성 높음 (스포츠형 해양 레크리에이션 공간의 개발 가능성 높음) - 인문자원의 다양성 높음	- 다양한 연안 관광 자원을 연계한 선형 개발방식
동 해 안	- 해수욕장과 경관지 위주의 단순한 자원구조	- 내륙의 산악형 관광자원과 연계개발

이러한 해역별 자원분포 특성을 고려할 때,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연안을 따라 분포하는 다양한 자연을 연계한 선행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해안에는 내륙의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의 연계개발 방식을 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第 4 章 國內 海洋觀光의 實態分析

관광은 매우 포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관광에 관한 통계자료는 거시적이고 총괄적인 것만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관광과 같이 특정부문의 실태를 나타내는 공식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통계자료로써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해양관광시장은 현재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편적인 자료와 연안 각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국내 해양관광객은 최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여건에 있어서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자유여행 대상국가 지정은 동북아 해상교통 중심지에 있는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이다.

국내 해양관광의 빠른 성장은 해양자원관리, 어촌개발, 연안해운 등 해양수산부문의 국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국내 해양관광에 대한 실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시·군단위의 관광관련 통계자료 및 정책자료, 관광관련 단체를 통한 자료수집, 면담 등을 통하여 국내 해양관광시장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1. 일반적 추세

1) 해양관광 선호도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관광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지만, 장기적 추세로 볼 때에는 소득증가에 따른 여가선용 욕구증가, 관광패턴의 다양화 및 개성화에 따라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은 1993~97년 기간 중 국내 관광참가자 수, 해상·해안 국립공원과 내륙형 국립공원의 입장객 수,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해양관광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제주도의 관광객 수 변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최근 4년간 국내 총 관광여행자 수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4대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입장객 수는 연평균 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도의 방문자 수는 5.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립공원 중 해상·해안 공원의 입장객 수 증가는 내륙형 공원의 입장객 수 증가율 1.3%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 국내 여행객 및 주요 해양관광지 방문자 추세

구 분		단 위	연 도			1994~97 평균증가율 (%)
			1993	1995	1997	
국민관광여행 참가자수 ¹⁾		만 명	3,151	3,131	3,161	0.0
국 립 공 원 ²⁾	4대 해상(해양) 국립공원 입장객	천 명	2,677	3,502	3,198	4.5
	내 륙 형 국립공원 입장객	천 명	18,651	21,584	19,672	1.3
	국립공원 입장객중 해상(해안)공원 입장객 점유율	%	12.6	14.0	14.0	-
제주도 관광객 ³⁾		천 명	3,464	3,997	4,363	5.9

자료 : 1) 한국관광연구원,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1996, 1997, 1998.

2) 국립공원 관리공단 내부자료, 1998.

3)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98.

해양관광의 빠른 성장을 시사하는 또 다른 현상으로는 하계휴가 목적지로서 해안지역을 선호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표 IV-2〉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관광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하계휴가 목적지로서 해안지역을 희망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1996년 조사대상자의 45.5%에서 1998년 75.2%로 크게 증가하였다. 물론 이 결과는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비율과는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답변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실현된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해안지역에 대한 선택비율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관광객의 증가 현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활동 형태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유형은 해수욕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해양관광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사례는 없지만, 제주도 하계 여행객의 해안관광 활동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³⁵⁾는 우리나라 해양관광 활동 행태에 대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V-2〉 우리나라 국민의 하계휴가 희망 목적지

단위 : %

희 망 목 적 지	1996	1997	1998
해 안 지 역	45.5	42.8	75.2
- 동해안	21.6	17.6	38.3
- 남해안	5.4	10.9	14.9
- 서해안	11.3	10.1	14.9
- 제주도	7.2	4.2	7.1
내 륙 지 역	54.5	57.2	24.8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관광연구원, 전게서, 1997, 1998.

〈표 IV-3〉과 같이 하계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중 80%가 해수욕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문자의 18.5%가 어촌관광을, 12.4%가 바다낚시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핑, 다이빙, 요트 등의 스포츠형 해양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참여 비율은 모두 2% 미만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반드시 국민 전체에 대한 선호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35) 김태보 등, 전게서, 1996, p.80~91. 설문조사는 1995년 7월 하순에 제주도를 방문한 4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설문조사가 하계에 제주도를 찾는 특정 집단에 대해 이루어졌고, 제주도의 자연 여건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활동유형이 해수욕에 치중되어 있고, 어촌관광, 바다낚시는 어느 정도 대중화되어 있지만, 스포츠형 해양 레크리에이션의 보급은 매우 저조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외래 관광객의 관광 경로

우리나라에는 연간 400만명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1997년도 기준으로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이 전체 외래관광객의 43%와 5.5%를 차지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 결과³⁶⁾에 의하면, 외래관광객의 관광경로는 주로 경부축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그림 IV-1> 참조), 해양관광지 중에는 제주도가 유일하게 외국인이 자주 찾는 곳이다.

〈표 IV-3〉 제주도 방문 관광객이 참여한 해안 및 해양관광 위락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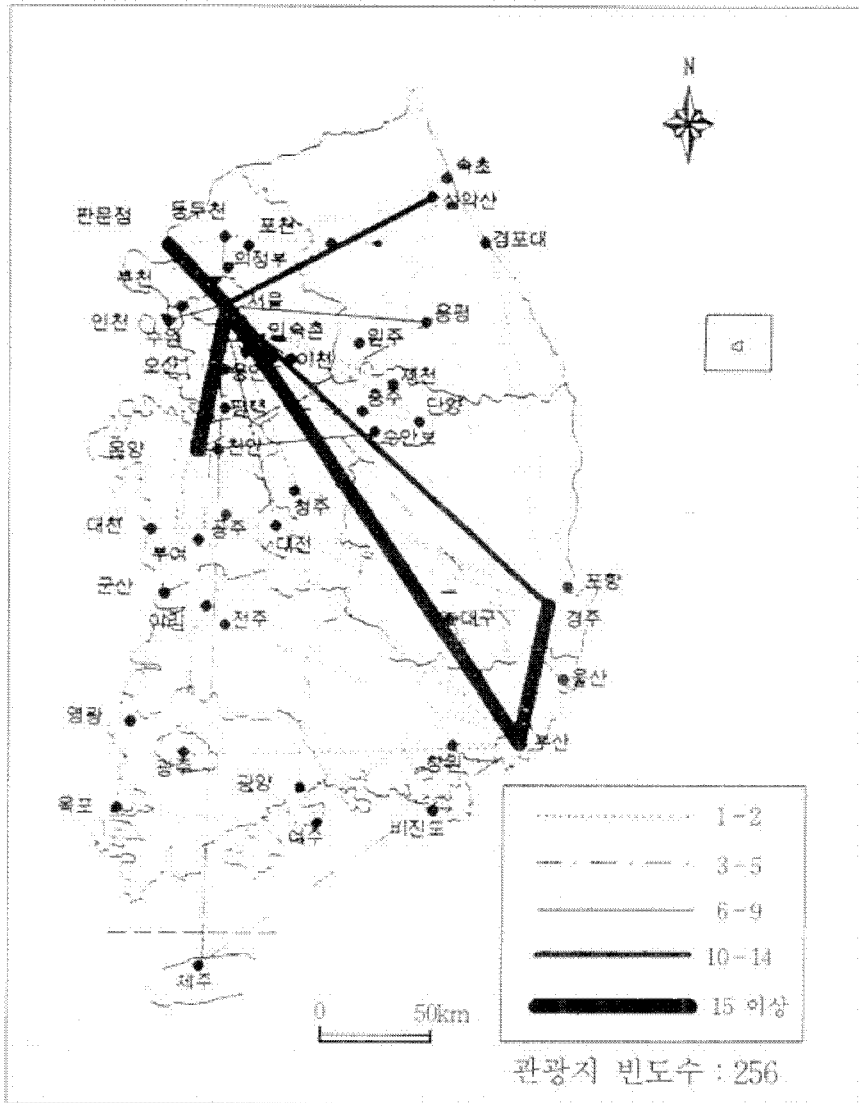
구 분 위 락 활 동	참여자 (인)	참여자/ 응답자 (%)	구 분 위 락 활 동	참여자 (인)	참여자/ 응답자 (%)
수영 · 해수욕	277	80.0	해산물 · 해초 따기	22	6.3
보트 타기	16	4.6	도서관	49	14.1
요트 · 수상스키 · 윈드서핑 · 카누	2	0.5	해저관광	13	3.7
모터보트	3	0.8	해변캠핑	109	31.5
스쿠버다이빙	5	1.4	볼링 · 탁구 등 실내체육	24	6.9
낚시	43	12.4	테니스 · 궁도 · 사이클링 등 야외 스포츠	9	2.6
어촌마을방문	64	18.5	기타(바다경관감상)	74	21.4
어로작업	5	1.4	총 계	715	

자료 : 김태보 등, 「제주도 비치관광의 활성화 방안」, 1996.

36) 정민채, 「한국 외래관광객의 관광성향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는 문, 1996.

〈그림 IV-1〉

외래 관광객의 국내 관광경로



자료 : 정민채, 「한국 외래관광객의 관광성향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1996.

우리나라에는 해양관광개발의 낙후로 말미암아 외래관광 시장이 하계에 비수기를 맞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WTO)에 의해 21세기 초 세계 최대의 관광송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을 해상통로로 바로 이웃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양관광의 낙후가 중대한 기회상실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는 특히 자연적 여건을 갖춘 해양관광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행 목적지 선택에 교통비용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³⁷⁾ 우리나라에 부존하는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적절히 개발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하계 휴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는 동경만 일대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염두에 둔 집중적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³⁸⁾ 최소 몇천억 대의 대형투자를 요하는 테마

〈그림 IV-2〉

동경만 테마파크 조성현황



37) Crouch, G. I., "The Study of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 A review of Findings," *Journal of Tourism Research*, Summer 1994, p.14.

38) 중앙일보, 1998. 11. 15일자.

파크가 자국민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동경만에는 바다를 주제로 한 핫게이지마 시 패러다이스가 운영 중이며, 千葉縣 浦安市에서 도쿄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오리엔탈랜드사가 1998년 10월에 바다 테마파크 도쿄디즈니 시(Sea) 착공식을 가졌다. 디즈니랜드 옆 48ha의 임해부지에 건설되는 디즈니 시는 바다의 신비, 전설을 주제로 꾸며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초에는 대통령이 직접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추진 중이다. 그밖에 서해안과 동해안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근래의 해안지역 관광객 급증에 따라 해양관광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유형별 국내 해양관광 현황

본 절에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관련 통계, 관광관련 기관의 내부자료, 관련협회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 국내 해양관광에 대한 총 참가회수를 추정하고 각 유형별 점유율을 분석함으로써, 해양관광시장의 실태 및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 해양의존형 활동

해양의존형 활동에는 해수욕, 바다낚시, 스포츠형 해양 레크리에이션 등이 있다.

(1) 해수욕 및 비치관광

각 시·도 및 시·군 단위의 통계와 한국관광연구원의 국내관광경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1996년 기준 전국의 해수욕객을 추정한 결과, 연인원 4,598만 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6년도 우리나라 총 인구 4,524만 8천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평균 한

번 꼴로 해수욕을 즐긴 셈이다.

해역별로는 서해안과 남해안이 전체 해수욕객의 40%를 수용하였고 동해안 지역이 약 20%를 유치하였다.

〈표 IV-4〉

해역별 해수욕객수(1996)

단위 : 개소, 천명, %

지 역	해 수 욕 장 수	해 수 욕 객 수	해수욕객수 점유율
서 해 안	110	18,374	40.0
남 해 안	84	18,210	39.6
동 해 안	102	9,006	19.6
제 주	14	395	0.8
합 계	310	45,985	100.0

연간 해수욕객 수 50만명 이상의 대형 해수욕장은 주로 충남과 부산에 분포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1996년도 현재 우리나라 최대 해수욕장은 충남 보령시의 대천해수욕장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자료의 성격 상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며 연도에 따라 순위는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유난히 많이 모인 1995년도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입장객수가 대천해수욕장보다 훨씬 많게 나타난다.

〈표 IV-5〉

해수욕객 50만명 이상의 해수욕장

단위 : 천명

순위	해수욕장명	위 치	해수욕객수	순위	해수욕장명	위 치	해수욕객수
1	대 천	충 남	8,308	8	화 지	충 남	1,215
2	해 운 대	부 산	6,398	9	송 정	부 산	1,148
3	광 안 리	부 산	4,205	10	상 주	경 남	1,000
4	경 포	강 원	2,475	11	낙 산	강 원	732
5	만 리 포	충 남	1,817	12	다 대 포	부 산	572
6	무 창 포	충 남	1,559	13	변 산	전 북	513
7	몽 산 포	충 남	1,562				

시·도별로는 충남과 부산이 각각 1,704만명과 1,257만명의 해수욕객을 모아 국내 최대의 비치관광 지역이 되고 있다. 반면 전남은 많은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소규모이고 도서형이 많아 이 지역을 찾는 해수욕객은 21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IV-3> 참조).

해수욕장에는 해수욕이 가능한 7, 8월 외에도 관광객이 찾는다. 해양의존형 활동은 아니지만 경관감상이나 비치 스포츠와 같이 해양연관형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료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7, 8월을 제외한 기간의 해수욕장 입장객이 7, 8월 중 입장객의 약 20~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수기의 해수욕장 입장객을 성수기 입장객의 20%인 약 92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전체 비치관광객은 연간 5,518만 2천명으로 집계된다.

전국의 해수욕장 별 입장객 수는 본 보고서 <부록 1>에 제시하였다.

(2) 바다낚시

국민의 소득증가 및 여가선용욕구 증대로 주말 또는 피서철에 바다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바다낚시는 비교적 간단한 장비로 손쉽게 즐길 수 있고 사계절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낚시전문 월간잡지인 「일요낚시」사의 추산에 따르면 바다낚시를 즐기는 인구는 현재 약 5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200개 이상의 바다낚시 동호인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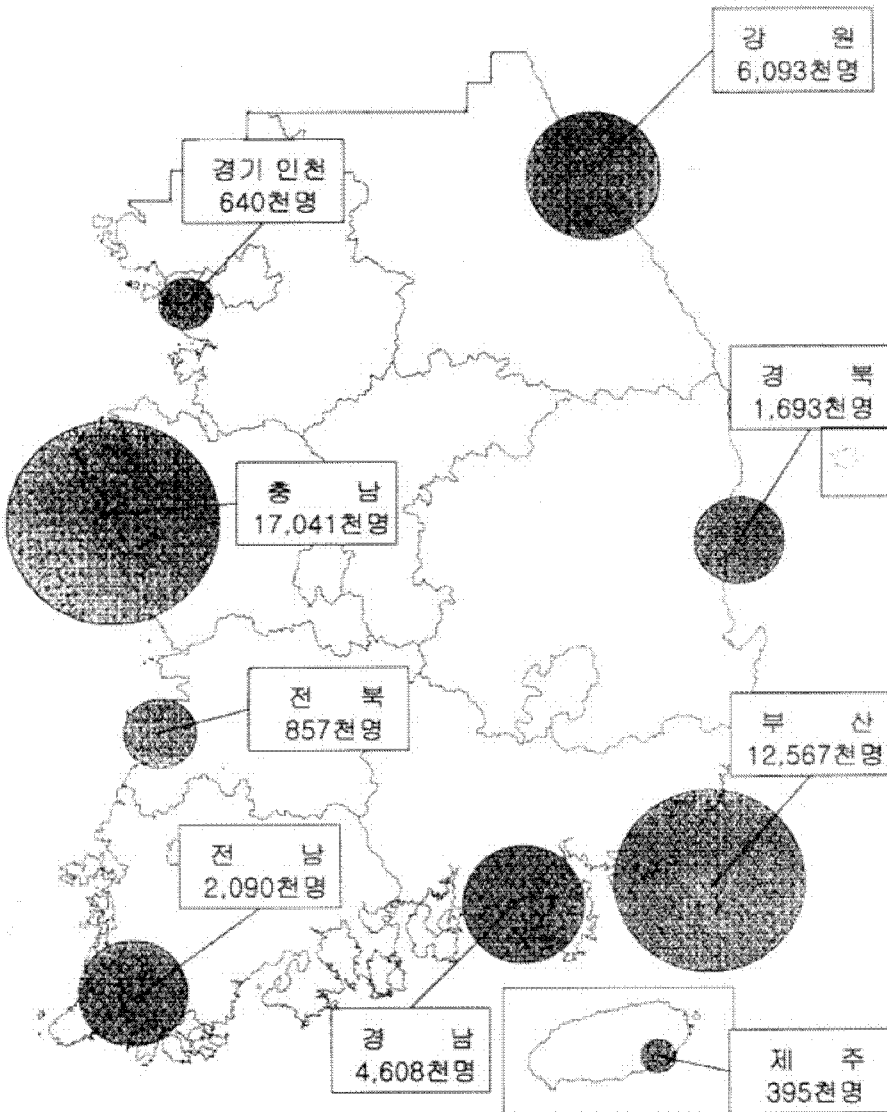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바다낚시 중 전통적으로 갯바위 낚시, 방파제 낚시 등이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어류를 찾아다니는 보다 능동적인 어선 낚시가 발전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객의 안전과 어민의 부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법을 제정·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1997년 한해동안 어한기를 이용한 낚시어선 영업으로 약 118억원의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신고된 낚시어선은 전국적으로 약 2,800척에 달하며 이용객 수는 연간 약 47만 7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일부 서구 선진국에서는 관광어업(recreational fishing)이 상업어업(commercial fishing) 못지 않게 크게 성행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 주의 경우, 관광낚시업이 1996년도에 주 경제에 12억 6,500만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 주었으며 관련 산업 및 용역 제공으로 약 1만 7천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고 한다.

〈그림 IV-3〉

시·도별 해수욕객 분포(1996)



우리나라 국민의 바다낚시에 대한 총 참가회수는 활동인구에 연간 평균 참가횟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일요낚시」사는 우리나라 바다낚시 활동인구의 평균 참가횟수를 약 10회 정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바다낚시에 대한 국내 총 참가회수는 약 500만회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 바다낚시 활동인구는 총 인구의 17.9%인 1,890만명에 이르고 연간 평균 활동횟수는 평균 10.9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⁹⁾

〈표 IV-6〉

일본 국민의 해양 레크리에이션 참가 현황

단위 : 만명, %, 회

활동 유형	참가 인구	인구대비 참가율	연간 평균 활동
바다 낚시	1,890	17.9	10.9
해양 다이빙	130	1.2	9.5
요팅 및 보팅	110	1.0	13.1
서핑(윈드서핑)	100	0.9	15.9

자료 : 畔柳昭雄, 전게서, 1997, p.200.

(3) 스포츠형 해양 레크리에이션

스포츠형 레크리에이션에는 요트 및 보트, 서핑, 해양 다이빙 등이 있다. 먼저 요트의 경우, 국내 활동 인구가 최대 1,500명 정도로 많지 않다고 한다.⁴⁰⁾ 우리나라에 요트 활동이 부진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전량 수입되는 요트의 가격이 특별소비세, 관세 등으로 인해 매우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소형 세일링 요트의 국내 시판가격이 500만~2천만원 선에서 형성되고, 모터가 달린 대형 요트는 1억원을 넘어간다고 한다. 또한 수산업과의 갈등, 해상보안을 위한 각종 규제 등도 국내 요트 활동의 성장을 막는 요인되고 있다.

윈드서핑의 경우 대한윈드서핑협회 추산에 따르면 국내에 경험자가 20만~30만명 정도이며, 협회에 등록된 동호인 수는 약 1만명 선에 이른다고 한다. 연중 수시로 윈드서핑을 즐기는 활동인구는 등록회원 수와 비슷한 1만명 선으로 보고 있다.

39) 畔柳昭雄, 전게서, 1997, p.200.

40) 대한요트협회 자문내용임.

대한수중협회에 따르면 해양다이빙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인구는 총 15만명 정도이며, 이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C 카드」 소지자⁴¹⁾가 약 10만명, 적극적인 활동인구는 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밖에 수상스키, 수상 오토바이 활동 인구도 각각 1만명 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⁴²⁾

해양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국내 총 참가횟수는 각 종목별 활동인구에 연간 평균 참가횟수를 곱하여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활동인구의 연평균 참가횟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본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국내 스포츠형 해양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총 참가횟수는 최대 9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수가 일본보다 적어서 국내 해양레크리에이션 활동인구의 연간 활동횟수는 일본에 비해 다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양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는 실제 연인원은 이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크다.

<표 IV-7> 국내 스포츠형 해양레크리에이션 참가 연인원 추정

단위 : 천명, 회

유 형	총 동호인 수	활 동 인 구	연간 활동횟수 ¹⁾	최대 활동 연인원
요 트	1.5	0.5~1.0	13.1	13
원 드 서 핑	200	10	15.9	159
해 양 다 이 빙	150	50	9.5	475
기타(수상스키 등)	20	20	13.1	262
합 계	372	81	-	909

주 : 1) 연간 활동횟수는 일본 사례 적용.

41) 세계수중연맹이 정한 레저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자격증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됨.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수중협회와 대한잠수협회가 소정의 강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하고 있음.

42) 김성귀, "우리나라 해양관광 현황 및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연구」, 제17권 1호, 1995, p.26.

2) 해양 연관형 활동

해양연관형 관광 활동은 반드시 해양공간에 의존하지는 않으나 해변에서 특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해양연관형 레크리에이션 활동에는 해변캠핑, 수족관 관람, 바다음식 맛보기, 경관감상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활동 유형이 존재한다.

먼저, 수족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정규적인 해양 수족관 시설이 서울 여의도의 63수족관 한 군데 밖에 없다. 본 연구 제2장에서 설정한 해양관광의 정의를 따를 경우, 63수족관 관람은 해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므로 해양관광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해안지역에는 수족관 유사시설이라 할 수 있는 수산과학관이 여수와 부산에 각각 하나씩 2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설 당 관람객 수는 연간 5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⁴³⁾ 따라서, 해안지역에서의 수족관 시설 관람인구는 연간 총 1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 밖의 해양연관형 활동의 참가자에 대해서는 추정에 이용할 만한 참고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이 1995년도에 수행한 어촌관광에 관한 설문조사⁴⁴⁾를 이용해서 전체 해양연관형 활동 참가자 수를 매우 개략적이거나 추정해 보기로 한다. 국내 연안지역에는 <그림 II-3>과 같이 대부분 어촌이 밀집하고 있으므로, 해양관광객들은 어떤 목적에서건 어촌지역을 경유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추정은 해양관광객이 모두 어촌지역에서 일정한 활동을 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19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2,17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조사대상자에게 1995년도에 어촌지역을 방문하여 관광활동을 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0.0%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한국관광공사가 조사한 전 국민 여행경험률 93.2%보다 낮다. 1996년도 현재 전국의 19세 이상 인구가 3,100만명이므로 이 비율을 적용할 경우, 어촌관광 경험자 수는 전국적으로 약 2,170만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어촌관광 경험자의 연간 평균 방문횟수는 약 2.0회로 조사되었으므로, 경험자 수에 연간 방문횟수를

43) 현지 수산과학관 직원과의 면담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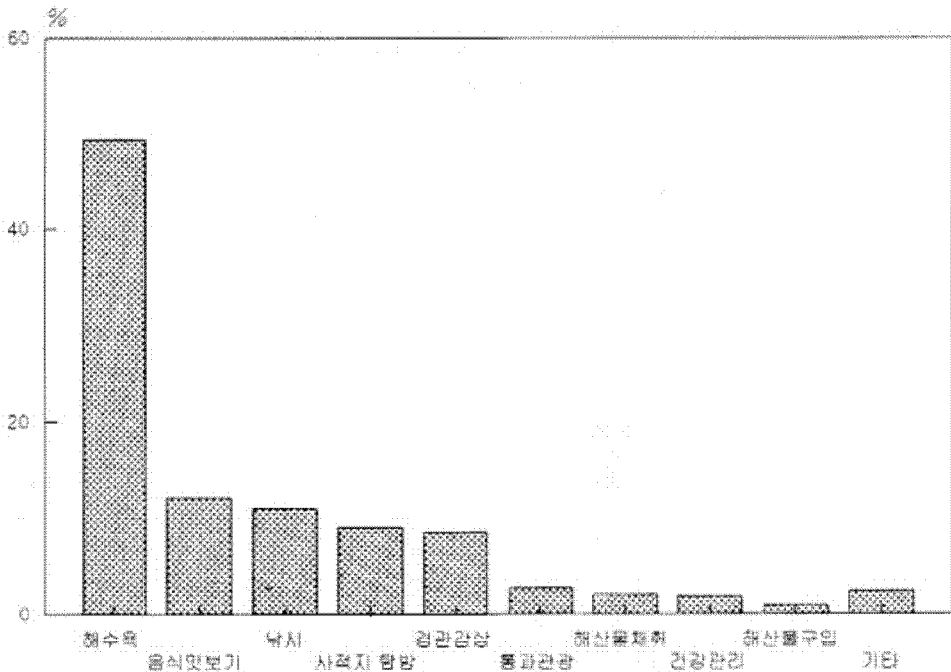
44) 농림부, 전계서, 1996, pp.105~147.

곱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어촌관광 참여횟수는 약 4,340만회로 추정된다.

또한 전국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어촌관광객의 유형별 활동 비율은 <그림 IV-8>과 같이 해수욕 49.4%, 음식맛보기 12.0%, 낚시 11.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수욕, 낚시, 해산물 채취 등은 해양의존형 활동으로서 앞에서 이에 대한 국민 총 참가횟수가 추정되었으므로, 해양연관형 활동 참가횟수 추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본 보고서 제2장에서 설정한 해양관광 정의에 따라 사적지 경관, 통과관광 등은 해양관광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촌관광객의 해양연관형 활동 비율은 음식맛보기, 경관감상, 건강관리, 해산물 구입 등에 참가한 비율을 합하여 약 25.4%로 나타난다. 이 비율과 어촌관광 총 참가횟수 4,340만회를 곱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해양연관형 활동 참여횟수를 총 1,100만회로 추정하였다. 물론 이 중에는 해양수산과학관 방문 인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림 IV-4>

어촌관광객의 유형별 활동비율



3. 해양관광에 따른 지출규모 추정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관광의 시장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먼저 1996년도 기준 해양관광의 유형별 참가자 수를 바탕으로 국내 관광여행 1일 평균지출액을 곱하여 해양관광에 따른 지출 총액을 추정하면<표 IV-8>과 같다.

〈표 IV-8〉 해양관광 유형별 참가자 수 및 지출(1996)

해 양 관 광 유 형		관광객 수 (만명)	국내 관광여행 1일 평균지출 (원) ¹⁾	해양관광 지출 (억원)
비 치 관 광	성 수 기	4,600	39,038	17,957
	비 수 기	920		3,591
바 다 낚 시		500		1,952
스포츠형 해양레크리에이션		90		351
해양연관형 관광 활동		1,100		4,294
합 계		7,210		28,145

주 : 1) 한국관광공사, 「1996 국민여행실태조사」, 1997를 바탕으로 계산.

국내 해양관광 총 참가횟수는 약 7,210만회로 추산되었다. 이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정한 1996년도 국민 총 관광 참여횟수는 2조 3,772만회의 30%에 해당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결과는 많은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실제 국민 총 참여횟수와는 상당한 오차가 나타날 수 있다.

해양관광에 따른 지출 총액은 당일여행 1일 평균지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조 8,500억원, 숙박여행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6조 8천억원 정도로 계산된다. 해양관광 참가자 중에는 당일여행과 숙박여행을 한 경우가 섞여 있을 것이므로, 해양관광에 의한 지출 총액은 두 금액 사이가 될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1996년도 국민관광여행 중 숙박관광여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에 이르므로(<표 IV-9> 참조), 이 비율을 적용할 경우 해양관광에 따른 국내 지출총액은 약 2조 8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비율 역시 국민 총 관광지출 9조 863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 IV-9〉

1996년도 국민여행 참가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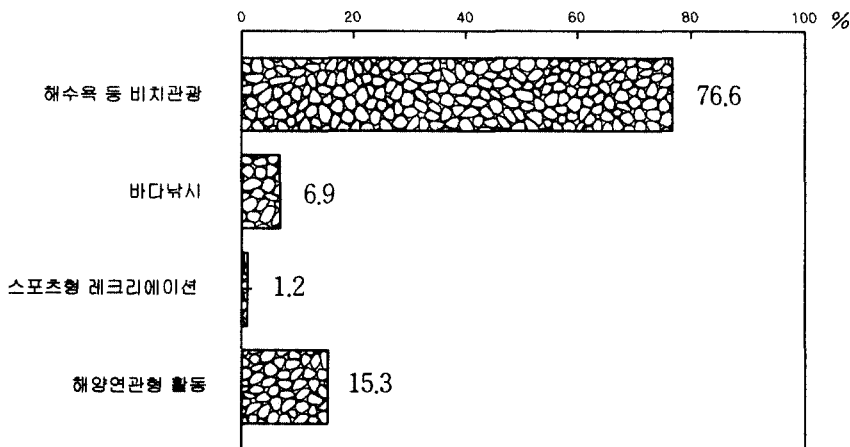
지 표	단 위	참 가 횟 수	비 율(%)
관광여행 1인당 연간 참가횟수 참가횟수(총량)	회 만회	6.61 23,772	100.0
숙박관광여행 1인당 연간 참가횟수 참가횟수(총량)	회 만회	1.28 4,603	19.4
당일 관광여행 1인당 연간 참가횟수 참가횟수(총량)	회 만회	5.34 19,205	80.6

자료 : 한국관광연구원, 「1997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7, p.41.

활동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해수욕을 중심으로 한 비치관광이 전체의 76.6%로 나타나, 앞 절에서 제시한 제주도 관광객의 해수욕 참가율 80%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해양연관형 활동 15.3%, 바다낚시 6.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스포츠형 해양 레크리에이션의 비중은 불과 1.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해수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단순한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5〉

국내 해양관광의 유형별 활동비율



4. 국내 해양관광개발 현황

현재 문화관광부에 의해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는 관광단지⁴⁵⁾는 모두 8개소가 있는데, 이 중 4개소는 해안에 위치한 해양형 관광단지이다. 이밖에 1994년도에 개발이 이미 완료된 경남 창원시의 도남관광단지가 있다.

〈표 IV-10〉

해양형 관광단지 개발현황

단 지 명	제 주 중 문		성산포 해양	해남 화원	감포 해안
	1단계	2단계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일대	남제주군 성산읍 일대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경북 경주군 감포읍 대본리, 나정리
면 적	68만평	40만평	126만평	154만평	120만평
총 사업비	7,554억원	6,434억원	4,800억원	7,528억원	2,130억원
사 업 기 간	1978~98	1992~2001	1990~2001	1991~2004	1991~2001
개 발 주 체	한국관광공사		제주도	한국관광공사	경주관광개발 공사
주 요 도 입 시 설	관광호텔, 골프 장, 관광식물원, 관광센터, 해양 수족관, 마리나	관광호텔, 콘도, 레저스포츠 시설	관광호텔, 상 가, 수산물 판매장, 운동, 오락시설	관광호텔, 가 족호텔, 골프 장, 마리나, 기업휴양촌	호텔, 골프 장, 야영장, 해양관광시 설,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예술공 연장, 조각 공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많은 관광지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수립·추진되고 있다. 〈표 IV-11〉에 나타난 바

45) 관광단지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의미함.

와 같이 1997년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131개 신규 개발사업 중 34개가 해양형 관광지이다. 각 사업의 내역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표 IV-11〉

전국 관광권별 관광개발계획

관 광 권	기존시설 정비보완		추가개발 대상	
	내 륙 형	해 양 형	내 륙 형	해 양 형
서 울 근 교 권	14	-	6	-
인 천 권	3	3	2	3
춘 천 권	24	-	11	-
치 악 산 권	15	-	3	-
설 악 산 권	8	8	8	1
강 룡 태 백 권	8	8	15	4
부 여 공 주 권	16	-	1	-
태 안 해 안 권	1	9	0	3
속 리 산 권	10	-	2	-
충 주 호 권	13	-	13	-
광 주 근 교 권	8	-	1	-
전 주 군 산 권	10	4	6	-
지 덕 산 악 권	11	-	3	-
변 산 해 안 권	2	1	0	2
서 다 도 해 권	2	7	2	1
남 다 도 해 권	3	3	0	5
부 산 경 주 권	8	5	4	3
대 구 근 교 권	7	-	12	-
한 려 해 상 권	7	10	0	3
안 등 권	7	-	16	-
합 천 권	11	-	11	-
주 왕 산 권	4	2	4	2
울 룡 도 권	4	2	2	2
제 주 권	3	5	3	2
합 계	199	67	131	34

자료 :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한국관광연감」, 1997.

이 중 투자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인 대형사업만도 <표 IV-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5개에 달한다.

<표 IV-12>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해양관광개발사업

사 업 명	용유·무의도 관광지 개발	군산 국제 해양관광단지 조성	장목 관광단지 조성	안면도 관광지 조성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위 치	인천시 용유도, 무의대 일대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등의 도서	거제시 장목면 구영, 송진포리 일대	태안군 안면읍 승언, 증장리	보령시 신흥동
면 적	194만평	208만평	약 100만평	156만평	65만평
총 사업비	32,460억원	15,177억원	13,000억원	11,130억원	8,291억원
사 업 기 간	1998~2012	1997~2006	1998~2006	1991~2001	1989~2010
시 행 자	인천시	전북도	경남도	충남도	보령시
주 요 도 입 시 설	카지노호텔, 모 터보트경기장, 골프장, 운동위 락시설, 해수욕 장, 버드파크, 컨벤션센터 등	카지노단지, 수상레포츠클 럽, 해수욕장, 마리나, 골프 장, 전망탑, 주 제공원, 해양 공원, 수족관, 바다낚시터 등	호텔 및 콘도, 주제공원, 컨벤 션센터, 골프장, 휴양시설, 카지 노, 요트장, 패 러글라이더장	해양공원, 주제 공원, 골프장, 실버타운, 해양 스포츠시설	호텔, 콘도, 상 가, 휴게소, 피 크닉장, 스포 츠센터

자료 : 각 시·도 내부자료.

이밖에도 해양형 관광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되고 곳은 강원도의 주문진, 화진포, 망상, 강릉 정동진, 전남의 흑산도, 영암·해남·진도·강진 등의 다도해권, 충남의 무창포, 춘장대, 간월도, 마량리, 부산의 미포항, 광안리~기장군의 동부해안, 울산시의 장생포, 경남의 마산시 구산면, 돌섬유원지, 제주의 함덕, 협재, 제주시, 섬지코지, 괭지, 차귀도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만일 계획대로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된다면 2000년대 초반에는 해양 관광시설의 공급이 급증할 것임에 틀림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사업 추진으로, 국토의 환경훼손, 관광시설의 과잉공급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재원조달 부진, 지역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은 사업주체였던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포기서를 제주도에 제출함으로써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전남 해남의 화원관광단지 개발은 사업주체의 재정난으로 사업계획의 대폭적인 축소가 고려되고 있다. 또한, 중문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서는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기업이 계약포기 의사를 밝히고 단지내에 건설 중이던 컨벤션 센터의 건립이 불투명해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가 추진 중인 거제시 장목면의 관광지 조성사업도 매립과 골프장 건설을 놓고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시에 추진되는 해양관광 개발사업이 사업주체의 전문성 부족, 연안의 환경파괴 및 어민과의 마찰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외환위기에 따른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종종 계획의 취소 혹은 대폭적인 축소로 귀결되기도 한다. 또한 사업 내용이 골프장, 숙박시설, 해양 레저·스포츠 시설, 해양주제공원 등 대부분 유사하고, 연안 공간의 개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적 개발로 관광객 유인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불식되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낙후되어 왔던 해양관광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

第 5 章 國內 海洋觀光의 問題點 및 振興方案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해양관광의 특성과 국내 해양관광자원의 분포 및 이용실태 분석을 종합하여, 현재 다양한 주체에 의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 해양관광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통한 진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해양관광의 편익과 비용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민 관광성향의 변화, 일부 해안지역에서의 관광객 수 증가 현상은 향후 국내 해양관광의 성장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해양관광 개발사업은 이러한 밝은 전망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광이 지역 사회에 변화를 촉진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해양관광개발은 최소한 그 영향에 대한 편익과 비용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공공 부문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적 파급효과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이해와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관광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는 환경 및 생태계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조망해 볼 수 있다. 먼저 관광과 환경의 관계는 항상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다. <표 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광지 개발은 관광 매력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주의를 환기시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관광이 화학비료나 농약을 대량 사용하는 집약적 농업과 같이 환경에 가하는 압력이 높은 산업활동을 대체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관광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이용이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여러 가지 직접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기기는 하지만,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적 수단으로서 대상 자원을 관광에 활용하는 방안이 많은 국가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로서 국립공원의 지정관리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자연 생태계의 가치가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 개발활동을 제한하고 일정지역을 선택적으로 관광에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보전과 이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밖에 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제도 등도 이 범주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표 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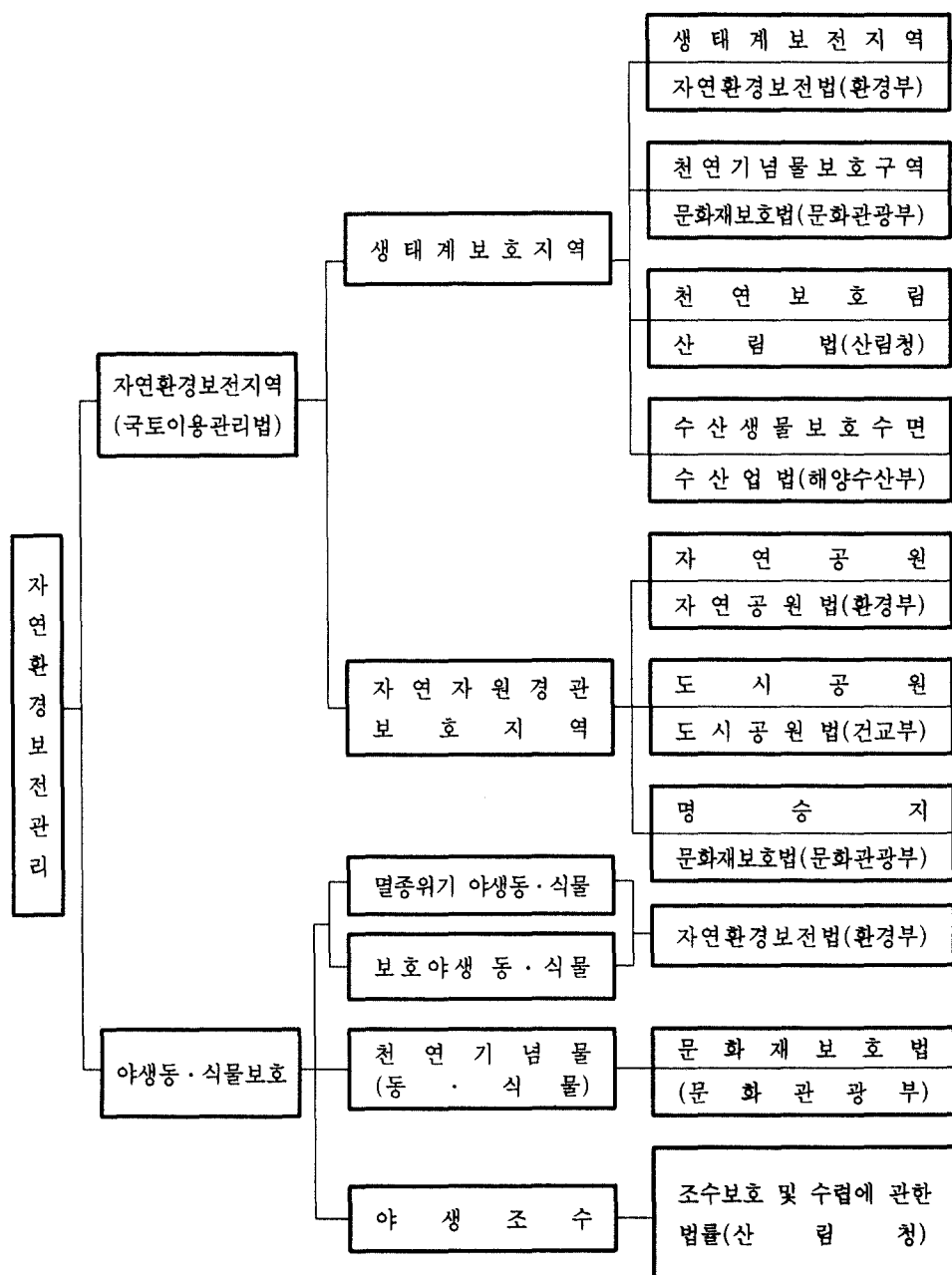
해양관광개발에 따른 편익 및 비용

편	익	편	익	비	용
환경 측면	- 환경의 질 유지를 위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동기 부여 - 환경에 대한 압박이 높은 기존의 산업활동을 대체 - 자원관리를 위한 신축적 수단	- 수질 및 수량 악화 - 쓰레기 및 오수 발생 - 생물 및 무생물 해양자원의 상실 - 환경에 대한 압박이 낮은 기존의 산업활동을 대체			
사회·경제적 측면	- 고용 및 소득 증대 -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 자본 확보 - 외자 유치	-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증가 - 사회적 긴장 증대 (치안불안, 범죄 증가 등) - 인구밀집도 증가 - 미풍양식 저해			

즉, 각종 자연환경보전제도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자원은 그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광은 이러한 자원의 보전과 이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은 다른 많은 경제적 활동과 달리 환경 보존과 반드시 상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리대상 자원에 대한 적절한 이용 및 관리 계획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연자원을 이용한 과도한 관광개발을 통제할 수가 없으며 그에 따른 환경 및 생태계 파괴도 예방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관광개발은 자원 및 환경 관리측면에서 적절히 계획될 경우에 한해, 다른 산업활동에 비해 자연환

〈그림 V-1〉

우리나라의 각종 자연환경 보전관리제도



경 보전을 위한 보다 신축적인 선택의 기회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관광은 지역사회의 산업 및 소득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 문화에 영향을 준다. 관광이 소규모 식당, 편의점 등 진입장벽이 낮은 소규모 서비스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의 고용을 촉진하고 소득수준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부작용으로는 관광산업의 계절성으로 인한 비수기의 고용 불안, 위락, 유흥업 중심의 경제활동에 따른 산업구조 불균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참여가 배제된 가운데, 지역 사회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대규모 단지가 개발될 경우, 단지 내에 유발되는 경제적 편익이 외지인에게만 돌아가는 인클레이브 효과(enclave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그밖에 외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치안 불안, 청소년 범죄 급증, 지역 미풍양식의 저해 등도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지역개발 측면에서 관광개발사업의 승인과정에 개입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해양관광의 문제점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활동은 해수욕 중심으로 대부분 7, 8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해양관광자원의 연간 이용효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수욕과 바다낚시를 제외한 해양의존형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매우 저조하며, 해양 관광시설도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양관광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2000년대 초반에는 시설부족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유사하여 현재까지 국내 혹은 외국에서 자주 보아왔던 정형화된 해양관광지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며, 개성이 희박한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 일시에 조성되어 관광객 유치에 위한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수익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해양관광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주체 혹은 지역주민의 정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표적시장의 관광객 유치 가능성과 관광개발에 따른 수익성에만 집착하는 반면, 해양관광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

이 일천하여 개발대상 지역의 연안 환경 및 자원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인근 지역에 분포하는 해양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밖에 연안자원 및 환경 관리 측면에서 제도적인 문제점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국민여가공간으로서 각 지역의 연안이 담당하여야 할 기능 분담에 대한 광역적 시각이나 계획이 미흡하다. 이와 관련하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중 「국민여가공간 조성」과 1990년에 수립된 전국관광종합개발계획 중 「전국 관광권 설정」 및 「유형별 관광지 개발모형」에서 일부 다루어진 바 있으나, 지역에 따른 연안 환경 및 자원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해양관광시설에 대한 등록 및 관리기준이 미흡하다. 해양관광 시설과 관련한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숙박업 중 해상관광호텔,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관광유람선업, 전문휴양업 중 해수욕장, 수족관 등에 대해서만 단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며, 개발 요건이나 관리기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한 규정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해수욕장과 같이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지는 시설에 대한 관리규범이나 사후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연안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해양관광시설과 관련한 법률체계 미비로 해양관광사업의 추진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로는 충무 마리나 리조트를 들 수 있다.⁴⁶⁾

셋째, 국내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상품화가 미흡하여, 국토의 자연적인 여건상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해양관광 욕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관광정책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한 내륙관광에 치중되어 온 결과,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 지식기반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46) 충무 마리나 리조트는 동력요트가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요트장업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등록체육시설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동력요트 구입비가 투자비로 간주되지 못하자 회원모집 규모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었음. 뿐만 아니라 동력요트는 유도선업법에 의해 일반 연안유람선과 동일한 법적 제제를 받으므로 요트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리조트 내 해상계류장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1995년을 기준으로 총 수입의 17%에 달하고 있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음(엄서호, "해양관광 시설개발의 기본방향", 해양도서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 세미나, 1998, p.14.).

이상과 같은 국내 해양관광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표 V-2>와 같다.

<표 V-2>

국내 해양관광의 문제점

유 형	문 제 점 및 영 향
행태적 측면	◇ 해수욕 중심의 단순한 활동구조 → 관광활동의 하계 집중 → 연간 자원이용효율 저하
개 발 측 면	◇ 해양레크리에이션 공간 및 관련시설 개발 낙후 → 해양간접체험 및 다계절형 활동 제한 → 계절성 한계 극복 난망 ◇ 해양 인문관광자원의 발굴 및 상품화 부진 → 계절성 한계 극복에 장애 → 국민의 관광욕구 충족에 한계 ◇ 유사한 성격의 해양관광개발의 경쟁적 추진 → 시설의 과잉공급 우려 → 자원이용효율 저하 → 사업 수익성 악화 및 연안환경 훼손
제도적 측면	◇ 여가공간으로서 각 지역 연안의 기능분담체계 미비 → 중복투자 및 자원이용효율 저하 → 연안환경 훼손 ◇ 해양관광시설에 대한 법률체계 미비 → 해양관광사업 추진장애 및 경영압박 ◇ 해양관광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 미비 → 연안환경 훼손 → 관광 매력도 저하 ◇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상품화 미흡 → 국민의 다양한 관광욕구에 부응치 못함

3. 국내 해양관광 진흥방안

해양관광은 국제친선 증진, 국가경제 향상, 그리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관광기본정책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해양관광의 행태적, 공간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양관광의 개발 및 관리, 즉 해양관광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은 일차적으로 자원관리 및 지역개발 차원의 정책으로부터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관광의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관광의 대상이 되는 해양자원 및 환경을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자원관리 및 지역개발 차원에서 해양관광과 관련한 정책은 앞 절에서 기술한 해양관광개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관광에 따른 비용과 편익 요소, 그리고 바로 앞 절에서 제시한 국내 해양관광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자원관리 및 지역개발(혹은 어촌개발) 측면에서 도출한 해양관광 진흥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 조사·평가 및 중장기 개발계획을 하루속히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그간 해양관광이 낙후되어 온 까닭에, 지형, 기후, 경관 등의 자연조건과 인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내 해양관광자원의 분포와 개발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관광개발과 관련한 계획은 이러한 자원조사 결과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별 해양관광자원의 분포와 특성, 개발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체계화하고, 국민에게 관광정보로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객의 행태 특성이 여행에 대한 동기가 부여된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수집하여 관광 목적지를 선택하기 때문이다.⁴⁷⁾

한편 이러한 자원 조사 및 평가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협의, 매립·간척 심의제도 등을 활용하여 관광개발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양관광을 위한 해역의 지정·관리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아울러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시 일정비율의 친수공간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연안이 다양한 인간 활동의 집중으로 인해 과도한 개발압력과 이용 권리에

47) 안중수·우찬복, “해양관광 현장 안내체계 연구,” 국제 해양관광 학술대회, 1997, p.97.

대한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의 수려한 경관과 레크리에이션 환경을 보존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정·관리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써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각 두 군데의 해상국립공원과 해안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수산업을 위한 보호수면 제도와 같이, 경관과 레크리에이션 활동 조건이 뛰어난 소규모 지역을 지정·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천 요트장의 경우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나라 연안의 밀집한 공동어장은 건전한 해양 레크리에이션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해역의 구획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화호 및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연안개발사업 추진시 국민 여가공간 창출에 대한 우선순위 배려가 미흡하여, 농지 조성, 산업단지 개발 등 단순 목적의 대규모 매립·간척이 성행해 왔다. 그 결과 연안자원의 다목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양환경 악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폐사, 주변 연안공간의 자산가치 저하 등의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단기적인 생산보다는 연안 공간의 자산적 가치를 중시할 때, 앞으로의 매립·간척은 친수공간의 조성을 통한 어메니티 수준의 창출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관광시설에 대한 등록기준 및 사후관리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해수욕장, 해상호텔, 수족관 등 해양관광시설은 그 설치목적이 국민의 다양한 관광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지만, 시설의 개발과 운영에 따라 해양환경 및 자원, 해상안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관광시설로서의 등록요건뿐만 아니라 해양관리 차원에서의 관리 규범 및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육시설로 규정된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등도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 해상안전, 수산업과의 관계, 그리고 건전한 해양 레크리에이션 시설로서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의 등록 및 관리기준이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쉽게 해중전망탑 등 아직 법률에 의해 등록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해양관광시설에 관한 사후관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하에 이루어져

야 할 사안이지만, 중앙정부에서는 현행의 등록기준이 불명확하여 제각각 다른 여건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300개 이상의 지정·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리규범 마련을 하루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친수성 국민여가공간 창출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관리법에 의해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안정비사업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 연안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거 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그리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등을 포함한다. 최근 해양의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므로, 연안정비사업은 해양관광자원의 조사·평가 결과와 각 지역의 해양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양관광 활동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에 충분한 비중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일본의 정책사례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일본은 1987년에 일명 「리조트법」이라고 불리우는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양호한 자연조건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을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문화활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역정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해양 레크리에이션 공간의 정비도 적극 추진되어 온 것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일본 운수성에서는 1988년도에 1999년도를 목표로 하는 「Marine 99 계획」을 수립하여 친수공간의 매력 증진 도모, 요트보관기능의 충실, 안전성의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섯째, 어촌, 항만지역 등 연안에서의 해양관광개발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해양관광사업에 자본과 경험, 조직체계, 그리고 경영능력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지방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48)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다 체계화하여 연안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양자원관

48) 해양수산부, 「'98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1998.

리 및 지역개발 차원의 합목적적 정책 수단으로 정착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연안의 유·무형 인문자원을 발굴하고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1998년 9월 어촌의 전통문화행사에 대한 실태파악에 착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존가치가 높고 관광상품화가 가능한 어촌문화행사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육성책을 마련하여 어촌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라고 한다.⁴⁹⁾ 이러한 사업은 어촌의 독특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특화된 해양관광지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본 사업도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의 틀 안에서 보다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곱째, 어항·연안항을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어항은 어촌관광에 중요한 하부시설이며, 유어선과 유람선의 계류장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안항은 관광객을 도서 및 벽지의 해양관광지에 연결하는 터미널이다. 어항과 연안항의 이러한 부차적인 기능을 감안할 때, 관광객의 편의를 보다 더 배려하는 관리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울산지방 해양수산청이 매암동에 4만 6천평 규모의 해양공원을 조성 중이며, 일본 수산청에서는 어선과 유람선의 질서있는 어항이용과 해양 레크리에이션 공간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피셔리나(Fishery + Marina)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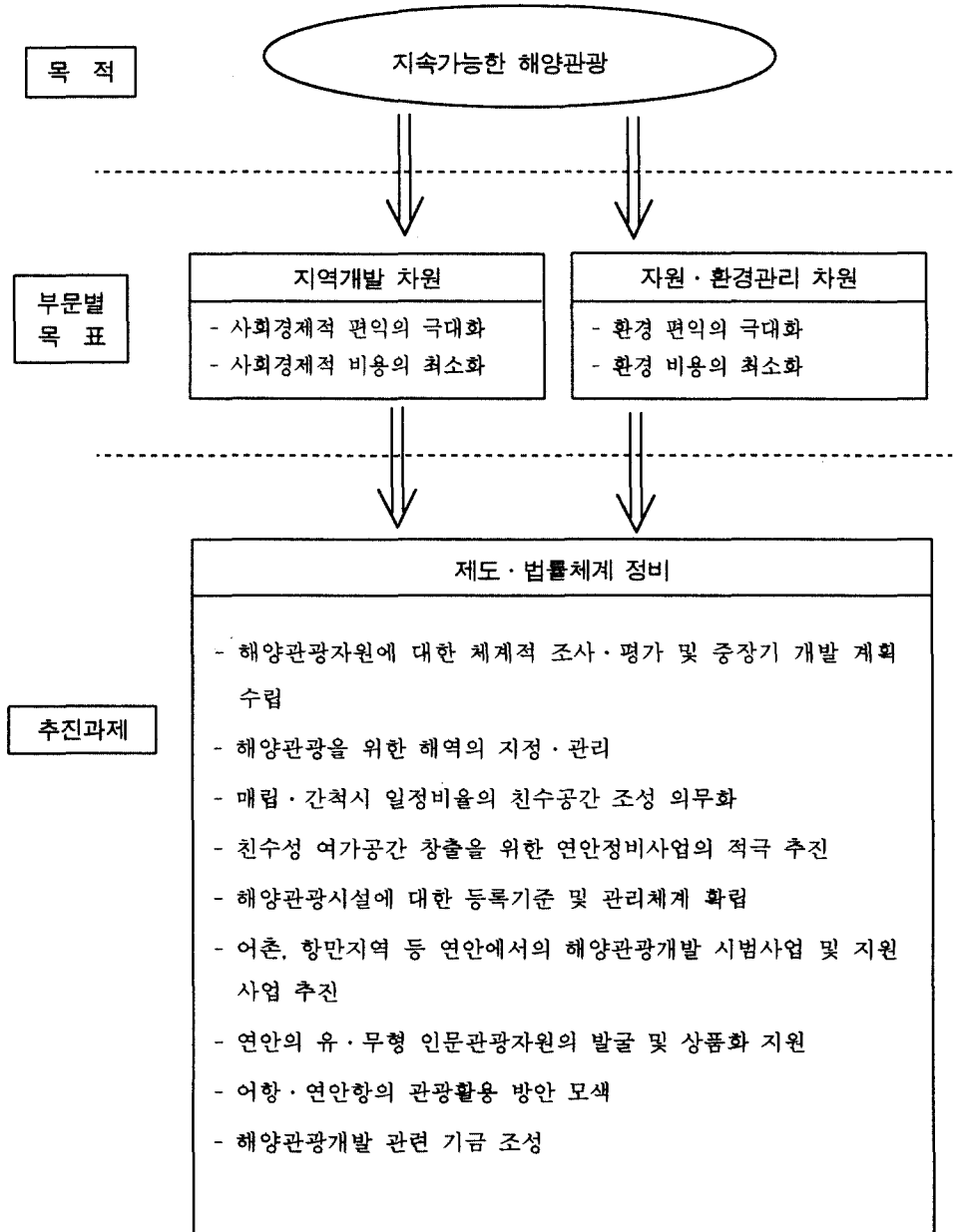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위에서 열거한 사업의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기금의 재원으로 해양관광지 개발에 따른 이익금의 일정비율을 징수하여 관광개발에 따른 환경 및 자원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해양관광 진흥방안을 정리하면 <그림 V-2>와 같다.

49) 한국일보, 1998. 9. 17일자.

〈그림 V-2〉

국내 해양관광 진흥방안



第 6 章 結 論

해양관리에 있어서 관광은 환경훼손, 자원 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자원 보전과 지역의 다목적 개발을 위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즉, 해양관리에 대해 관광은 '결과 측면'과 '목적 측면'의 양면에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 중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전개하는가는 선택 가능한 문제이다.

해양자원관리와 관련하여 해양관광에 대한 적절한 계획과 관리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해양관광은 연안 공간의 환경과 자원,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에 여러가지 부담스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자원특성, 환경수용력 등에 부합하도록 해양관광자원개발을 유도한다면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원의 공급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비록 계절성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해양관광을 위한 천혜의 자연조건과 역사·문화적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측면에서는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자원관리에 해양관광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존적 성격이 강한 해양관광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원은 대개 공유자산의 성격의 갖고 있어서, 공공부문에 의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용에 대한 과도한 경합으로 자원남용과 환경파괴가 필히 수반된다. 연안자원의 본질적 가치와 관광이 연안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는 적절한 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관광에 따른 제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양자원관리 부처로서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의 개발과 그 영향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해양관광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을 위해 정부가 해양자원관리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해양관광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국내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관광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연안의 환경 및 자원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의 법률체계에서 용이한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해양관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해양관광개발을 통한 국민의 다양한 여가선용 욕구의 충족은 국가 관광기본정책 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연안 환경 및 자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중앙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1. 국내 문헌

- 김성귀, "우리나라 해양관광 현황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해양연구」, 제17권 1호, 1995.
- 김태보 등, 「제주도 비치관광의 활성화 방안」, 1996.
- 김홍운·김사영, "우리나라 해양관광자원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 연구」, Vol. 7, No. 1, 1992.
- 농림부,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1996.
- 농촌경제연구원, 「어항지정개발에 관한 연구」, 1998.
- 문화관광부, 「국민의 정부 새 문화관광정책」, 국정자료 98-5, 1998.
- 서태양, 「관광자원론」, 지문사, 1991.
- 안종수·우찬복, "해양관광 현장 안내체계 연구," 국제 해양관광 학술대회, 1997. 4. 29. 광주.
- 엄서호, "해양관광 시설개발의 기본방향," 해양도서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 세미나, 1998. 4. 21. 서울.
- 윤무부, "한국의 새와 철새 도래지", website [http:// bric.postech.ac.kr/species/ bird/korbird/](http://bric.postech.ac.kr/species/bird/korbird/).
- 이광원, 「관광학 원론」, 지문사, 1997.
- 이장춘, "한국 해양관광자원개발의 전략," 「해양정책연구」, Vol. 2, No. 2/3, 1987.
- 이재천, 「관광어촌」, 백산출판사, 1995.
- 정민채, 「한국 외래관광객의 관광성향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6.
- 조동오 등, 「해양레저산업의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1997.

- 최용준, 「문화관광자원의 해외홍보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 한국관광개발연구원, 「1997 한국관광연감」, 1997.
- 한국관광공사, 「'96 국민여행실태조사」, 1997.
- _____, 「농어촌 관광개발 활성화방안 연구」, 1996.
- _____, 「외래관광객여론조사」, 1997.
- _____, 「지방관광 활성화 협력방안」, 1997.
- 한국관광연구원,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각년호.
- 한국토지공사, 「제주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 1998.
- 해양수산부, 「해양관광현황 및 진흥방안」,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내부자료, 1998.
- _____, 「'98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1998.

2. 외국 문헌

- Ceballos-Lascurain, H., *Tourism, Ecotourism and Protected Areas*, IUCN-The World Conservation Union, 1997.
- Cicin-Sain, B., et. al., "Coastal Tourism and Recreation," US National Ocean Conference, June 11~12, 1998, Monterey, CA, USA.
- Conlin, M. V., and Baum, T., *Island Tourism : Management Principle and Practice*, John Wiley and Sons, 1995.
- Crouch, G. I., "The Study of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 A review of Findings," *Journal of Tourism Research*, Summer 1994.
- Fagence, M., "Principles of Sustainable Coastal Tourism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astal Tourism Development for Korea: Method and Practice, 1997.
- Fridgen, J. D., "Trends in International Travel and Coastal Touris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astal Tourism Development for Korea : Method and Practice, 1997.

- Hwang, K. H., and Yoon, D. H., "Contribution of Ocean Industry to the Korean Economy," The First Korea-US Marine Policy Forum, Oct. 22~23, 1998, Seoul, Korea.
- Island Resources Foundation, "A Snapshot of Beach Restoration/Coastal Tourism Issues," Website: <http://cyboard.com/CoastalAdvocate/snapshot.html>, 1996.
- Miller, M., and Auyong, J., "Coastal Zone Tourism : A Potent Force Affecting Environment and Society," *Marine Policy*, Vol. 15, No. 2, 1991.
- Wong, P. P., "Coastal Tourism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 Relevance and Lessons for Coastal Zone Management,"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38, 1998, pp.89~109.
- 畔柳昭雄,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시설(일본어)」, 技報堂出版, 1997.

附 錄

1. 전국 해수욕장 입장객 추계(1996)/ 97
2. 전국 해양관광개발 계획(1997년도 현재)/ 102

附 錄 1

전국 해수욕장 입장객 추계(1996)

1. 경기 · 인천

해 수 욕 장 명	입 장 객 수
을 왕 리	380,000
기 타(26개소)	260,000
합 계	640,000

2. 충남

해 수 욕 장 명	입 장 객 수	해 수 욕 장 명	입 장 객 수
대 천	8,307,965	방 포	136,014
무 창 포	1,559,300	백 사 장	169,487
만 리 포	1,817,517	천 리 포	135,983
몽 산 포	1,562,211	화 지	1,215,516
연 포	432,202	구 레 포	116,869
화 암 포	257,147	기 타(27개소)	540,000
청 포 대	280,256	합 계	17,041,082
삼 봉	511,676		

3. 전북

해 수 욕 장 명	입 장 객 수	해 수 욕 장 명	입 장 객 수
변 산	513,670	상 록	44,253
위 도	97,732	모 항	31,185
동 호	27,600	기 타(2개소)	40,000
구 시 포	65,652	합 계	857,292
선 유 도	37,000		

4. 전남

해수욕장명	입장객수	해수욕장명	입장객수
방죽포	218,200	함평	12,190
전남	246,006	가마미	73,580
울포	136,120	대광	124,487
수문	13,000	기타(78개소)	780,000
송호	486,650	합계	2,090,233

5. 경남·울산

해수욕장명	입장객수	해수욕장명	입장객수
일산	470,000	구영	5,840
진화	900,000	농소	150,000
광암	20,000	덕원	1,734
통영	40,000	명사	200,000
비진도	60,000	와현	180,000
남일대	200,000	여차	34,900
대포	100,000	죽림	23,300
상주	1,000,000	학동	450,000
송정	350,000	황포	7,320
사촌	43,000	홍남	100,000
월포	125,000	함목	28,630
구조라	220,000	합계	4,608,000

6. 부산

해수욕장명	입장객수	해수욕장명	입장객수
해운대	6,398,000	다대포	572,000
광안리	4,205,000	일광	151,000
송정	1,148,000	합계	12,567,000
송도	93,000		

7. 경북

해수욕장명	입장객수	해수욕장명	입장객수
송도	26,090	대진	58,400
북부	54,740	고래불	64,400
칠포	401,200	구산	32,447
월포	170,930	망양	18,605
화진	120,400	봉평	19,340
도구	19,910	후정	15,120
구룡포	65,740	나곡	10,411
오류	79,875	덕신	3,587
나정	120,280	후포	7,117
봉길	75,040	울릉도	84,690
나인	26,080	합계	1,693,442
관성	219,040		

8. 강원

해수욕장명	입장객수	해수욕장명	입장객수
경포	2,475,000	궁촌	11,000
주문진	201,000	용화	23,000
연곡	40,000	장호	17,000
옥계	58,000	임원	17,000
사근진	28,000	호산	19,000
강문	16,000	월천	10,000
송정	13,000	한재밀	10,000
안목	10,000	승공	9,000
등명	12,000	연봉	8,000
소돌	53,000	부남	5,000
영진	16,000	문암	8,000

해수욕장명	입장객수	해수욕장명	입장객수
순개울	6,000	신남	10,000
남항진	8,000	삼척	61,000
삼포2	15,000	아야진	15,000
하평	15,000	작은후진	8,000
뒗불	16,000	중산	6,000
사천	50,000	광진	3,000
순포	17,000	오분	3,000
염전	6,000	송지호	226,000
안인	7,000	삼포	129,000
고성북	7,000	화진포	88,000
정동	11,000	벽도	51,000
도직	12,000	명파	7,000
먹진	4,000	자차진	8,000
망상	444,000	대진1	7,000
노봉	21,000	대진5	6,000
어달	11,000	초도	13,000
기곡	10,000	거진1	4,000
한섬	5,000	거진11	9,000
추암	24,000	반암	10,000
속초	153,000	가진	10,000
앵방	48,000	공현진1	11,000
덕산	25,000	공현진2	13,000
설악	132,000	남애3	22,000
오산	31,000	남애1	18,000
죽도	41,000	지경	63,000
남애	47,000	광진	13,000
정암	32,000	합계	6,093,000

9. 제주

해수욕장명	입장객수	해수욕장명	입장객수
이 호	57,730	화 순	21,500
중 문	100,500	신 양	10,310
곽 지	25,780	표 선	32,020
협 재	64,290	하 모	7,210
함 덕	126,040	합 계	480,780
김 녕	35,600		

자료 : 1) 각 시·도 및 시·군 통계연보, 1997.

2) 한국관광연구원, 1998, 전국관광경로 데이터베이스.

附錄 2

전국 해양관광개발 계획(1997년도 현재)

1. 인천 해안권

○ 기존계획 정비보완(3개소)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서 포 리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해수욕장 일원 ○ 0.286km ² (개발면적 : 0.143km ²)	해 양 형 관 광 휴 양 지	○ 여관, 휴양소, 상가 및 매점, 어린이놀이터, 게이트볼장, 야영장, 전망대 등
용유·무의 (을 왕 리)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무 의도 일원 ○ 0.397km ² →5.577km ² (개발면적 : 2.04km ²)	체 류 형 국 제 해 양 종 합 휴 양 시 설	○ 호텔(관광, 해상관광, 가족), 휴양콘도, 소핑센터, 골프연 습장, 마리나센터, 컨벤션센 터, 해양박물관 등)
평 택 호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 면 ○ 0.68km ² →4.98km ² (개발면적 : 4.12km ²)	해 안 형 종 합 휴 양 지	○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식당, 복합상가, 쇼핑몰, 운동장, 경정경기장, 청소년수련시설 등

○ 추가 개발대상지(4개소)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십 리 포	○ 인천광역시·옹진군 영흥면 내리 ○ 0.2km ² (개발면적 : 0.166km ²)	해 양 휴 양 지	○ 유스호스텔, 여관, 해상물음 식점, 운동경기장, 휴게소, 전 망 및 조경휴게지 등
메 추 리 지 구	○ 경기도 안산시 대부남동 ○ 4.96km ² (개발면적 : 3.14km ²)	복합위락형태의 해양리조트타운	○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복합 상가, 쇼핑몰, 오션랜드, 테 마파크, 운동오락시설, 기업 휴양촌, 종합관리 및 지원 센터 등
선 감 지 구	○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 ○ 3.31km ² (개발면적 : 1.8km ²)	해 안 형	○ 호텔, 콘도미니엄, 복합상가, 골프장, 해양문화센터, Farm Village 등
내 리	○ 경기도 평택시 평정읍 내리 ○ 0.1km ² (개발면적 : 0.1km ²)	해 안 형 위 락 휴 양 형	○ 다목적 잔디관광, 낚시터, 수 변레스토랑, 선착장 등

2. 설악권

○ 기본계획 정비보완(8개소)

- 관광(단)지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화 진 포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현내면 초도리, 죽정리 ○ 1.697km ² →3.347km ² (개발면적 : 1.29km ²)	해 안 휴 양 형	○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관광 식당, 실내 레크레이션센터, 수상스키, 전망휴게소, 호수 공원, 통일교육원 등
송 지 호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 2.43km ² (개발면적 : 0.205km ²)	해 안 휴 양 형	○ 호텔, 국민호텔, 여관, 상가, 식당, 광장, 야영장, 자연공원 등
삼포·문암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문암·송암리 ○ 0.791km ² (개발면적 : 0.083km ²)	해 안 휴 양 형	○ 휴양콘도미니엄, 상가, 식당, 야영장 등
속 초 해 수 욕 장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대포동 ○ 0.349km ² (개발면적 : 0.1km ²)	해 안 휴 양 형	○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여관, 유흥음식점, 스쿠버센터, 수영장, 야영장, 위락시설 등
남 애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 0.133km ² →0.98km ² (개발면적 : 0.547km ²)	해 안 휴 양 형	○ 콘도미니엄(타워형, 빌라형), 국민호텔, 관광호텔, 관광민속촌, 식당, 토산품판매점, 농산물직판장, 해수주제공원, 삼림욕장, 청소년수련원 등

- 관광객이용 시설업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봉 포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 0.406km ² (개발면적 : 0.115km ²)	해 안 휴 양 형	○ 휴양콘도미니엄, 음식점, 상가, 테니스장, 야영장, 담수욕장, 휴게소 등
대 진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 0.06km ² (개발면적 : 0.114km ²)	해 안 휴 양 형	○ 콘도, 호텔, 클럽하우스, 휴게소, 테니스장, 간이골프장, 해변레크레이션 등
가 진· 공 현 진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공현진리 ○ 0.353km ² (개발면적 : 0.248km ²)	해 안 휴 양 형	○ 콘도, 호텔, 상가, 음식점, 야영장, 광장, 전망대 등

○ 추가 개발대상지(1개소)

- 관광(단)지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순 포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 1.5km(개발면적 : 0.172km)	해 안 휴 양 형	○ 휴양콘도, 관광호텔, 클럽하우스, 안내소, 골프장(36홀), 볼링장, 수영장, 라켓볼장 등

3. 강릉 · 태백권

○ 기존계획 정비보완(8개소)

- 관광(단)지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주 문 진 해 수 욕 장	○ 강원도 강릉시 주민진읍 향 호리 ○ 0.482km ² →0.528km ² (개발면적 : 0.324km ²)	해 안 휴 양 형	○ 가족호텔, 국민호텔, 여관, 휴게소, 수영장, 민속놀이장, 자연체험장, 수련장, 자동차 야영장 등
연 곡 해 수 욕 장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 0.151km ² →0.176km ² (개발면적 : 0.065km ²)	해 안 휴 양 형	○ 콘도미니엄, 여관, 종합상가, 해수풀장, 매점, 야영장 등
옥 계 해 수 욕 장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천리 ○ 0.571km ² →0.216km ² (개발면적 : 0.098km ²)	해 안 휴 양 형	○ 국민호텔, 여관, 다목적운동 장, 휴양시설, 잔디광장 등
망 상 해 수 욕 장	○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 0.691km ² (개발면적 : 0.298km ²)	해 안 휴 양 형	○ 호텔, 콘도미니엄, 여관, 토 속음식점, 유흥음식점, 운동 장, 유흥시설, 문화시설 등
삼 척 해 수 욕 장	○ 강원도 삼척시 중산동, 갈천 동, 교동 ○ 0.386km ² →0.374km ² (개발면적 : 0.14km ²)	해 안 휴 양 형	○ 콘도, 호텔, 여관, 일반음식 점, 골프연습장, 실내운동시 설, 야외공연장, 야유회장 등
맹 방 해 수 욕 장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하 맹방리 교가리, 덕산리 ○ 1.269km ² (개발면적 : 0.476km ²)	해 안 휴 양 형	○ 콘도관광, 국민호텔, 여관, 대 중음식점, 다목적운동장, 노 인휴양촌, 야외공연장, 자동 차야영장 등
장 호 해 수 욕 장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 용화리, 원덕읍 갈남리 ○ 0.372km ² (개발면적 : 0.112km ²)	해 안 휴 양 형	○ 콘도, 여관, 식당 및 휴게실, 해산물센타, 수영장, 요트장, 클럽하우스, 선착장 등
동 명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 진리 ○ 0.217km ² →0.168km ² (개발면적 : 0.107km ²)	해 안 휴 양 형	○ 콘도, 여관, 야영장, 상가, 운 동장, 오락장, 조경휴게소 등

○ 추가 개발대상지(3개소)

－ 관광(단)지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소 금 강 온 천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행정리 ○ 0.263km ² (개발면적 : 0.236km ²)	산 약 및 해 안 복 합 형	○ 관광호텔, 가족호텔, 국민호텔, 콘도미니엄, 민속촌상가, 스포츠센터, 유기사설, 워터 파크, 청소년센터, 온천장, 온 천병원, 실버스텔 등
강 룡 온 천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연곡면 동덕리 ○ 1.505km ² (개발면적 : 0.748km ²)	산 약 및 해 안 복 합 형	○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토 산품판매점, 농산물직판장, 눈썰매장, 스포츠센터, 온천 장, 실버타운, 단체연수원 등
금 진 · 심 곡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옥계면 금진리 ○ 3.245km ² (개발면적 : 2.403km ²)	산 약 및 해 안 복 합 형	○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소 평센터, 관광식당, 해수욕장, 해양레포츠센터, 삼림욕장, 피크닉장 등

4. 태안해안권

○ 기존계획 정비보완(10개소)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삼 교 호	○ 충남 당진군 신평면 웅정리 ○ 0.199km	수 변 관 광 형	○ 유흥시설, 수상레저, 클럽하우스, 피크닉장, 전망대 등
무 창 포 해 수 욕 장	○ 충남 보령시 웅간읍 관당, 독산리 ○ 0.31km	해 안 위 락 형	○ 숙박시설, 운동 및 위락시설 등
대 천 해 수 욕 장	○ 충남 보령시 신흥동 ○ 2.15km	해 안 위 락 형	○ 호텔, 국민호텔, 캠프장, 야외공연장, 상가 등
안 면 도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승언리, 중장리 ○ 3.096km ² →4.693km ²	위 락 및 휴 양 형	○ 골프장, 숙박, 휴양단지, 연수, 스포츠레저, 노인휴양 등
덕 산 온 천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 0.723km	관 광 및 휴 양 형	○ 종합온천장, 호텔, 상가 등
죽 도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 0.062km	위 락 및 휴 양 형	○ 여관, 운동·오락시설, 상가 등
금 강 하 구 독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당산리 ○ 0.178km	호 반 관 광 형	○ 특산물 판매장, 수상레저클럽하우스, 체력단련, 휴게시설 등
원 산 도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 0.548km(개발면적: 0.145km ²)	해 안 위 락 및 휴 양 형	○ 콘도, 호텔(관광,국민,가족), 상가, 체력단련실, 골프연습장, 수상레저, 야외공연장 등
난 지 도	○ 충남 당진군 석문면 대난지도리 ○ 0.14km(개발면적: 0.036km ²)	해 안 위 락 형	○ 체력단련실, 다목적운동장, 야영장, 입간휴게소, 청소년수련장, 야외공연장 등
춘 장 대	○ 충남 서천군 서면 중리 ○ 0.625km(개발면적: 0.202km ²)	해 안 위 락 형	○ 호텔(관광,국민), 상가, 오토캠프장, 야영장, 체력단련실, 육외수영장 등

○ 추가 개발대상지(2개소)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석 대 도	○ 충남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 0.075km ² (개발면적 : 0.027km ²)	해 양 위 락 형	○ 호텔, 상가 및 음식점, 극기 훈련장, 유흥시설, 클럽하우 스, 전망대 등
간 월	○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 0.171km ² (개발면적 : 0.046km ²)	철 새 탐 조, 수 상 래 저, 첨 단농업 단지	○ 횃집단지, 향토음식점, 해수 풀장 놀이터, 전망대, 팔각 정, 야영장 등

5. 전주 · 군산권

○ 기존계획 정비보완(3개소)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금 강 호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 0.686km ² (개발면적 : 0.573km ²)	도 시 관 광 형 내 수 면 휴 양 형	○ 호텔, 식당, 다목적운동장, 수 영장, 놀이동산 등
은 파	○ 전북 군산시 미룡동 ○ 1.719km ²	수 변 관 광 형	○ 호텔, 여관, 전문유흥식당, 횃 집단지, 기계유흥시설, 수족 관, 단체연수원 등
선 유 도	○ 전북 군산시 선유도, 방축도, 말도, 관리도, 대장도 ○ 1.961km ² →6.271km ² (개발면적 : 1.897km ²)	해 안 위 락 및 휴 양 형	○ 호텔(특급,관광), 콘도, 성인 위락단지, 쇼핑몰, 회센터, 골 프장, 워터파크, 컨벤션센터, 해양문화센터 등

6. 변산 해안권

○ 기존계획 정비보완(6개소)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화 원	○ 전북 해남군 화원면 주관 화북리 ○ 5.084km	중 합 해 양 관 광 단 지	○ 호텔(관광,가족,국민,전통), 콘도미니엄, 골프장, 체육시설, 해양문화센터, 민속촌, 휴양병원, 관광센터 등
고하도·눌도	○ 전북 목포시 고하도 신안군 용출도 ○ 2.002km	서 남 단 의 대 표 적 인 위 터 프 런 트로 개 발	○ 골프장, 컨벤션센터, 호텔(관광,일반,전통), 마리나, 민속박물관, 미술관, 쇼핑센터 등
영 산 호	○ 전북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상호리 ○ 1.765km	도 서 근 교 종 합 관 광 휴 양 지	○ 호텔, 유스호스텔, 워터파크, 야외공연장, 휴양소, 기술연구센터 등
녹 진	○ 전북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 0.156km	위 락 · 레 저 기 능 을 갖 춘 관 광 지	○ 관광안내소, 활어센터, 호텔, 가족호텔, 유흥시설, 피크닉장, 관광농원 등
회 동	○ 전북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 0.295km	4 계 절 형 해 안 휴 양 형	○ 관광안내소, 향토음식점, 가족호텔, 청소년수련장, 야외극장, 비치발리볼장, 관광유람선, 선착장 등
임 자 대 광 해 수 욕 장	○ 전북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 1.5km	해안관광휴양지	○ 관광안내소, 가족호텔, 단체수련원, 스킨스쿠버, 체력단련장, 다목적운동장 등

7. 남다도해권

○ 기존계획 정비보완(3개소)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땅 끝	○ 전북 해남군 송지면 갈두리·송호리 ○ 0.645km ²	체류형관광광지	○ 상가 및 식당, 간이매점, 조경휴식소, 공동취사장
청 해 진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죽좌도 ○ 0.645km ²	해삼리조트	○ 호텔,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수족관, 스포츠센터, 수변윝락시설, 노인휴양촌, 해양박물관 등
울 포	○ 전남 보성군 도율리·울포리 ○ 0.145km ²	체재형관광광지	○ 식당, 상가, 활어센터, 향토물산판매점, 일반호텔, 여관 및 별동 등

○ 추가 개발대상지(5개소)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소호·땅끝	○ 전남 여천시 소호동 및 여천군 화양면 땅끝 ○ 3.769km ²	미래지향적 해양거점관광지	○ 호텔,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컨벤션센터, 수족관, 골프장, 마리나, 스포츠센터, 선박박물관, 관광안내센터 등
만 성 리	○ 전남 여수시 만흥동 오천동 ○ 0.24km ²	4계절형 해양휴양지	○ 콘도미니엄, 리조트호텔, 쇼펍물, 문화시설, 종합상가, 다목적운동장, 유람선터미널 등
장 재 도	○ 전남 장흥군 안량면 장재도 ○ 0.401km ²	해변수련공간	○ 가족호텔, 야영장, 향토음식점, 향토산물판매장, 해수욕장, 인공비치, 전망대 등
화 포	○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 ○ 0.096km ²	도시근교의 휴양지	○ 가족호텔, 향토음식점, 수변상가, 향토산물판매장, 해수욕장, 어린이 놀이터 등
무 술 목	○ 전남 여천시 돌산읍 무술목 ○ 1.24km ²	여가공간의 체계적 개발	○ 오토캠핑장, 피크닉장, 유람선선착장, 유람선터미널, 기념품판매점, 휴게음식점 등

8. 부산 · 경주권

○ 기존계획 정비보완(5개소)

지역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부 산 지 역	해운대 해수욕장	○ 해운대구 우중동 ○ 0.449km	4 계 절 관 광 지 개 발 복 합 형	○ 해운대춘천센타, 야간조명거 리 등 ○ 휴양·숙박·공공시설 등
	태종대	○ 연도구 동삼동 ○ 1.739km		
경 주 지 역	송도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 0.455km(개발면적 : 0.233km)	해안종합위락 및 휴양형	○ 호텔, 여관, 야외음악당, 청 소년회관, 민속공연장, 집 단유흥집, 종합상가 등
	감포	○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대 본리 ○ 3.975km(개발면적 : 2.603km)	세 계 적 해 양 위 락 형	○ 호텔(관광,가족,국민), 콘도 (빌라형,타워형),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체력단련장, 미 니골프장, 휴양촌(기업,청소 년), 야영장, 종업원기숙사 등
	영일만	○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 0.073km→0.115km (개발면적 : 0.084km)	해안휴양 및 전시·관람형	○ 횃집, 향토음식점, 유스호스 텔, 해양박물관, 수족관, 청 소년수련마을, 자연관찰학 습장 등

○ 추가 개발대상지(3개소)

지역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부 산 지 역	해운대 온천센타	○ 해운대구 중동 ○ 0.154km	대중종합휴양지	○ 온천휴양, 휴식·보양시설, 온천오양시설, 놀이시설, 공 연장 등
	기장해양 리조트	○ 기장군 연화리 ○ 0.429km	해운대관광 특구를 중심으로 관광네트워크 형 성	○ 해양관광테마파크, 숙박시 설, 마리나, 해저수족관 등
	야간조명 거리	○ 해운대구 조선비치호텔-관가 정호텔구간	해수욕장의 자연물과 인공물의 조화	○ 가로등 및 조명등, 야외조 각장, 상징 및 쇼펍물, 조 각품 등

9. 한려해상권

○ 기존계획 정비보완(10개소)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도 남	○ 경남 통영시 도남동 ○ 0.298km ²	해 안 형	○ 콘도미니엄, 호텔, 스포츠센타, 요트장, 해수풀장 등
당 항 포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 0.359km ²	해 안 형	○ 호텔, 상가, 조명 및 휴양시설 등
송 정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 0.906km ²	해 안 형	○ 호텔(관광·국민), 콘도, 상가, 스포츠센타, 마리나 등
장 목	○ 경남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 3.3km ²	해 안 형	○ 호텔, 콘도, 컨벤션센타, 상가, 골프장 등
육 계	○ 경남 마산시 구산면 육계리 ○ 0.631km ²	해 안 형	○ 호텔, 콘도, 상가, 마리나, 골프장 등
장 목(간곡)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간곡리 ○ 0.295km ²	해 안 형	○ 여관, 화센타, 야영장, 종합상가, 삼림욕장, 체력단련장 등
홍 남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 0.205km ²	해 안 형	○ 호텔, 콘도, 유스호스텔, 상가, 야외공연장, 미술관 등
선 진	○ 경남 사천시 선진리 ○ 0.661km ²	해 안 형	○ 호텔, 여관, 상가, 체력단련장, 야영장 등
서 포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미토리·다평리 ○ 3.292km ²	해 안 형	○ 호텔, 여관, 콘도, 심신수련장, 테니스장, 골프장 등
석 교	○ 경남 남해군 석교리 ○ 0.282km ²	해 안 형	○ 호텔, 여관, 상가, 체력단련장, 야영장, 청소년 교육장 등

○ 추가 개발대상지(3개소)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입 현	○ 경남 남해군·남해읍, 남면·입현리 ○ 0.8km	해 안 형	○ 호텔, 콘도, 실버주택, 상가, 유스호스텔, 마리나, 스포츠센터 등
서 대	○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단항리·서대리 ○ 0.96km	해 안 형	○ 호텔, 콘도, 방갈로, 상가, 자연학습장,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미니골프장 등
동 해	○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용정리·양촌리 ○ 1.997km	해 안 형	○ 호텔, 콘도, 토산품점, 동·식물원, 박물관 등

10. 주왕산권

○ 기존계획 정비보완(2개소)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장 사 해 수 욕 장	○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 0.088km(개발면적: 0.036km)	해반위락휴양형	○ 가족호텔, 해변식당, 다목적운동장, 수상레포츠클럽, 계류장, 노천영화 상영장 등
고 래 불	○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 0.294km→2.25km (개발면적: 0.389km)	해 안 종 합 위 락 · 휴 양 형	○ 씨사이드호텔, 휴양콘도, 관광상가, 마리나, 유흥시설, 해수온천장 등

○ 추가 개발대상지(2개소)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후 정	○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 0.828km(개발면적: 0.639km)	종 합 해 양 관 광 리 조 트	○ 여관, 콘도, 화타운, 토산품판매점, 연수원, 야영장, 민속촌 등
망 양 해 안	○ 경북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 0.924km(개발면적: 0.64km)	해 양 형 종 합 위 락 및 휴 양	○ 호텔, 콘도, 해변음식점, 스포츠센터, 트림코스, 연수원, 자동차야영장, 전통문화마을 등

11. 울릉도권

○ 기존계획 정비보완(2개소)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사 동 (새 각 단)	○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 0.166km(개발면적 : 0.055km)	전 천 후 위 락 휴 양 형	○ 가족호텔, 휴게소, 약수광장 등
죽 도	○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 ○ 0.208km(개발면적 : 0.046km)	전 천 후 휴 양 형	○ 음식점, 전망광장, 헬기장, 야영장, 화훼원 등

○ 추가 개발대상지(1개소)

지 구 명	위 치 및 면 적	개 발 유 형	주 요 도 입 시 설
행 남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 0.244km(개발면적 : 0.01km)	산 악 탐 방 및 해 안 휴 양 형	○ 상점(매점), 피크닉장, 삼림욕장 등

12. 제주권

○ 기존계획 정비보완(6개소)

관 광 지	개발의 기본방향	정 비 계 획	주 요 도 입 시 설
중 문 관광단지 (서귀포시 4.15km)	○ 국제적 종합휴양단지 조성 ○ 해안변의 일정구간을 보존 ○ 지역특성이 부각된 개발 유도 ○ 이용객의 계층은 다양화하고, 수용가능한 숙박 및 상업시설을 유치 ○ 보행자를 위한 동선 체계 수립 ○ 기존시설과 2단계(동부)지역의 시설이 조화되도록 서로 상충되지 않는 시설을 적극 도입	○ 개발계획의 면적을 유원지조성면적과 개발에 필요한 공유수면 면적으로 조장 ○ 2차 조성계획 수립 - 국제관광지의 면모를 과시 - 지역주민의 참여시설 반영 ○ 1단계 지구와 2단계 지구의 연계도로 폭을 장차 확장가능하도록 충분히 확보	○ 숙박시설 :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콘도미니엄 ○ 상업시설 : 상가 면세점 및 관광센터, 전문상가, 쇼핑몰, 장터 ○ 휴양시설 : 전망휴게소, 수족관, 식물원, 민속촌 ○ 운동시설 : 골프장, 스포츠위락시설, 중문랜드, 마리나
성산포·해 양관광단지 (남제주군 1.23km)	○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경유형에서 체류형으로 전환 ○ 야생동물과 철새 서식지의 보호 ○ 해양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시설의 유치 ○ 관광개발과 기존취락(성산리)의 연계 ○ 자연경관보존 및 환경오염 방지 ○ 일출봉의 시각경관을 보존 ○ 지역주민의 참여방안 적극 검토	○ 해양레크레이션 기능을 부각 ○ 국제규모의 시설유치를 위해 고도제한의 재조정 ○ 주민소득과 연계된 시설을 확충 ○ 취락밀집지역을 해제 ○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최우선으로 유치	○ 숙박시설 : 여관, 관광호텔, 방갈로, 야영장 ○ 상업시설 : 활어센터, 수산물 전시 및 판매장, 종합상가, 일반상가, 식당 ○ 휴양시설 : 해수욕장, 관광농원, 휴게시설, 해양박물관 ○ 운동시설 : 해양스포츠시설, 유흥시설, 운동경기시설
표선 민속 관광단지 (남제주군 0.526km)	○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표선해수욕장과 연계 ○ 관광활동을 다양화 ○ 사업성 있는 시설의 유치를 적극검토하여 단지를 활성화 ○ 일부 기존취락(당포동)을 민박촌화하여 표선해수욕장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 ○ 주민참여시설을 적극검토하여 도입 ○ 발견된 동굴에 대한 학술조사후 관광자원화 모색 ○ 해안별 일부구간을 보전 ○ 단지면적을 유원지면적과 일치시키기 위해 조성	○ 민속관광을 집단화 ○ 표선해수욕장과 연계 ○ 숙박기능의 보완과 야간활동시설을 도입 ○ 해안변에서 100m내 외는 보존 ○ 종합위락시설 도입 ○ 선사동굴을 탐사하여 개발	○ 숙박시설 : 관광호텔, 민박 ○ 휴양시설 : 기존 민속촌시설, 태평양, 도서지방, 민속촌, 식물원, 선사동굴전시관

관 광 지	개발의 기본방향	정 비 계 획	주 요 도 입 시 설
함덕지구 (북제주군 0.465km)	○ 해수욕장의 수질을 적극보전 ○ 기존시설을 최대한 보존 ○ 함덕리의 기존취락을 시범민박촌으로 정비개발	○ 개발계획의 면적을 축소 조정 ○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휴양·체류시설을 확충 ○ 지구내 기존사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 숙박시설 : 호텔, 민박, 야영장 ○ 상업시설 : 상가, 식당 ○ 휴양시설 : 해수욕장, 어린이 유흥시설
남원지구 (남제주군 0.2km)	○ 서귀포, 표선, 성산간 해안관광지의 연계 ○ 특색있는 도입시설과 계절감 있는 지구를 조성 ○ 해안변의 해안경관을 보존	○ 2차지구 조성계획을 수립 ○ 해안경관감사지로 중점개발 ○ 해안선에서 100m내외는 적극 보존하며 일부 산책로만 개설	○ 숙박시설 : 호텔, 단독숙박시설 ○ 상업시설 : 야영장, 피크닉장, 관광농원, 다목적휴게소, 종합휴게소, 연못, 정원, 조경휴게시설
용머리지구 (남제주군 0.256km)	○ 지구면적을 조성계획으로 축소조정 ○ 산방산은 보전지구로 지정하여 적극 보존 ○ 지구내 용머리와 해안변을 보존하여 산책로 이외의 시설유치를 제한	○ 지구면적을 조성계획면적으로 축소 조정 ○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절대 보존하고 그의 지역은 다양한 관광위락시설의 도입을 검토	○ 상업시설 : 상가, 매점 ○ 휴양시설 : 사적시설, 화해단지, 전망대

○ 신규관광지 개발구상(1개소)

관 광 지	개발의 기본방향	주 요 도 입 시 설
송악산지구 (남제주군 1.672km)	○ 경관감상과 역사유적지로 개발 ○ 기존취락(산수이동)을 중심으로 집중 개발 ○ 모슬포 일본군격전지와 연계하여 개발 ○ 해상위락활동을 유치 송악산→가파도→마라도→화순→용머리→송악산→차귀도→모슬포→송악산 ○ 모슬포와 송악산간 새로운 해안도로를 개설하여 모슬포를 관광기능과 연계 ○ 청소년과 탐방객이 해양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을 확보 ○ 마을 공동목장부지중 일부지역과 유보지역을 시설지구로 지정 개발	○ 숙박시설 : 관관호텔 ○ 휴양시설 : 청소년 야영장, 오토 캠프장, 일본군격전지 기념공원